

# 문화 서울



2024 7월 11일 서울 문화예술 소식

**1**

2024. 7. 11 목요일 19:00  
국립국악원 대극장

2024. 7. 18 목요일 19:00  
국립국악원 대극장

2024. 7. 25 목요일 19:00  
국립국악원 대극장

내 삶을 헤아리는 한여름 밤 인문학

**내 삶을 헤아리는 한여름 밤 인문학**  
일상을 지배하는 심리적 불안함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다면? 치유의  
공연과 명사 특강, 대화로 구성된 인문학  
콘서트가 7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찾아간다. 명상 심인물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인문학  
강연이 펼쳐진다. 김훈비 작가는  
'글쓰기가 삶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들에 대하여'(11일 관악구), 광정은  
작가는 '마음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인문학 공부'(18일 광진구), 또 정재찬  
교수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돌봄에 관하여'(25일 서초구) 각자의  
경험을 들려준다.

2024 7월 27~28일  
국립국악원 대극장

세컨드 핸드 댄스  
Second Hand Dance  
**베이비 클럽**  
We Touch, We Play, We Dance

2024. 7. 27~28\* 11:00, 15:00  
국립국악원 대극장

**아시테지 국제 여름축제 in 광진 <베이비 클럽>**  
댄서들이 무대 곳곳을 누비며 아기들과  
하이파이브하고 포옹하는 등 접촉을  
활용해 장난기 가득한 공연을 펼치는  
체험형 무용극! 영국 무용단체 세컨드  
핸드 댄스가 제작한 공연 <베이비  
클럽>이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를  
계기로 광진어린이공연장에 찾아온다.  
촉감을 활용한 신체 접촉을 통해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연으로, 18개월부터  
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7월 27일과 28일**  
광진어린이공연장  
**02.2049.4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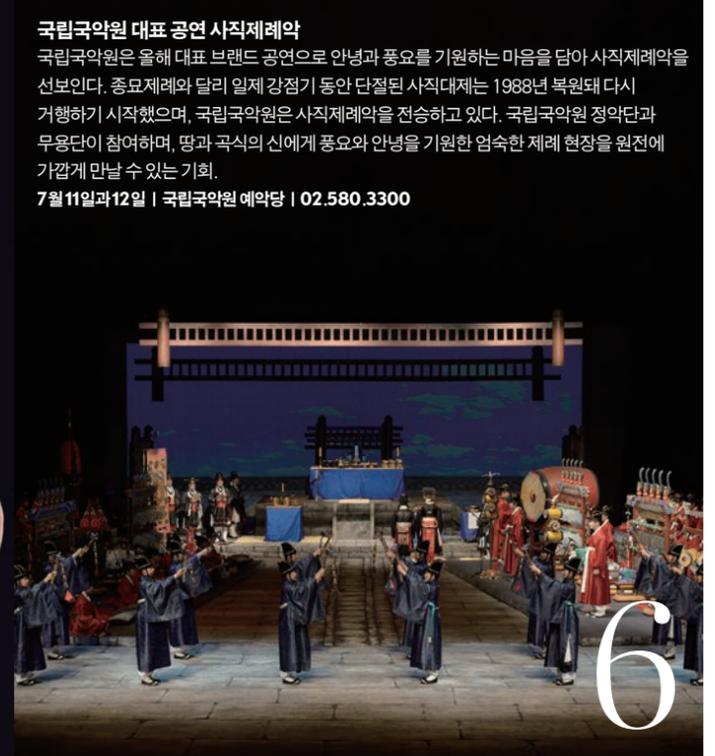
**예술힐링놀이터**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아이와 엄마아빠 모두 '힐링'하는 시간이 펼쳐진다. 온 가족이 따로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 '예술힐링놀이터'는 오는 7월 공연 관람과 워크숍을 병행하는 '공연 나들이' 시간으로 꾸러진다. 7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주말 나들이를 고민하고 있다면 양천으로 향해보자.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 라이브'**  
서울 전역 50곳에서 거리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에게 일상의 이벤트를 선물하고 다양한 공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4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7월에는 월·화·수·목요일 광화문광장 광장숲과  
사계정원에서 정기로 공연이 열리며, 금요일에는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독성한강공원, 스키야밸리직식산업센터 서문광장,  
한성백제박물관 앞마당 등에서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주말에는  
가든파티·노들섬·독성한강공원·돈의문박물관마을 등  
곳곳으로 찾아간다. 악기 연주와 함께하는 음악 공연만 아니라  
마술·스트리트댄스·마임·전통악기 연주까지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자세한 일정은 관련 누리집(seoulbusk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극 <맥베스>**  
배우 황정민이 원 캐스트로 5주간 연극 <맥베스> 무대에 오른다. 2018년과 2022년에  
공연한 <리처드3세>에 이은 두 번째 셰익스피어 작품. 세련된 미장센으로 고전을  
탁월하게 재해석해온 연출가 양정웅이 참여한다. 배우 김소진이 레이디 맥베스를 맡고,  
송일국·송영창·남윤호 등 배우가 함께한다.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02.6925.5600**

**퇴근 후 정원생활**  
정원문화와 식물 가꾸기에 관심을 두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심형 가드닝 체험 프로그램 '퇴근  
후 정원생활'이 마련됐다.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도시 직장인이 가드닝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체험할 기회. 수업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기배도 명동점과 시청점에서  
열리며, 11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 원으로,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yeyak.seoul.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국립현대무용단 <여자야 여자야>**  
세계 무대를 누비는 안은미와 국립현대무용단이 선보이는 파격적인 현대무용 공연이  
금나래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여자'라는 단어로 들여다보는 우리 근현대의 파격적인 면면,  
강렬한 사운드, 화려한 무대 연출이 섬 없이 펼쳐지며 관객을 사로잡는다.  
**7월 12일 오후 7시 30분 | 금나래아트홀 | 070.8831.5347**



**국립국악원 대표 공연 시작제례악**  
국립국악원은 올해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시작제례악을  
선보인다. 종묘제례와 달리 일제 강점기 동안 단절된 시작제례는 1988년 복원돼 다시  
거행하기 시작했으며, 국립국악원은 시작제례악을 전승하고 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이 참여하며, 땅과 곡식의 신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한 엄숙한 제례 현장을 원전에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  
**7월 11일과 12일 | 국립국악원 예약당 | 02.580.3300**



**서울스테이지 2024**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예술적 경험! 클래식 음악·국악·재즈·연극·인디음악 등 양질의 공연을 생활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스테이지 2024'가 곳곳으로 찾아온다. 7월에는 23일 정오 대학로센터, 24일 정오 오후 5시 청년예술청,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으니 관심 있다면 서울문화재단 누리집(sfac.or.kr/seoulstage)에서 관람 신청을 놓치지 말 것!

9



**류장현과 친구들 <BLACK>**  
영등포아트홀에서 인무가 류장현의 신작 <BLACK>을 선보인다. 이번 신작은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감정과 기억을 탐험하는 내용을 다룬다. 일종의 어둠으로의 여행으로, 관객은 퍼포머의 동행자로 물리·심리적 상태의 어둠을 마주하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어둠을 몸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어둠 속에서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7월 13일과 14일 | 영등포아트홀 1544.1555

10



**7월의 클래식다방**  
서초문화재단은 '클래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다'라는 콘셉트로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기획 공연을 지원하는 '클래식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서초구 소재 소공연장과 갤러리에서 열리며, 7월에는 바로크음악부터 재즈까지 아우르는 총 네 편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7월 6·13·20·27일 오후 5시 | 날짜별 공연 장소 상이 | 02.3474.2911

**국립현대미술관 360° VR 전시투어**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미술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리고자 작품과 전시를 가상현실로 담아낸 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2021년 시작한 이 시리즈는 로토스코핑(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하는 효과)과 컴퓨터그래픽을 접목해 작품을 보다 실제처럼 소개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작품이 아닌 전시를 선정, 전시실 전체를 초고화질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작품의 이야기를 다채로운 효과와 함께 소개한다. 영문 음성 해설과 국·영문 자막이 서비스되며,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 현재 첫 번째 전시로 <한국 근현대 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을 소개하며, 작품의 세부를 4K 화질로 즐길 수 있다.



12



**<Confession to the Earth>**  
중구문화재단은 충무아트센터 내 갤러리 신당의 재개관을 기념하며 <Confession to the Earth>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인간, 동물 그리고 광활한 대지의 아픔을 조형예술로 표현한 사진전으로, 한국·독일·미국·영국 등 사진가 다섯 명이 전하는 '지구를 향한 고백'을 담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열린다.  
9월 8일까지 |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신당 | 02.2230.6600

이대성 <Futuristic Archaeology> 2015

13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아이에게는 상상력을, 어른에게는 동심을 선사하며 온 가족이 즐기는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이 열린다. 평소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어린이 관객을 위한 즐거운 예술 경험을 대거 마련했다. 국내외 무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세 편의 선정작이 무대에 오르며, 공연마다 입장 연령과 관람 추천 연령이 상이하니 꼼꼼히 살펴볼 것!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1668.1352



**최수열의 밤 9시 즈음에**  
예술의전당은 현대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최수열의 밤 9시 즈음에>를 선보이고 있다.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현대음악이 주는 묘한 해방감과 쾌감을 만끽하는 공연으로, 지휘자 최수열의 해설이 더해진다. 클래식 음악은 물론, 현대음악과 국악관현악까지 다양한 장르에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최수열의 면모가 돋보이는 기획. 7월 공연에는 소프라노 황수미가 협연자로 나서며, 헬무트 라헨만과 진은숙의 작품을 들려준다.  
7월 4일 오후 9시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 1668.1352

15

**칸디다 회퍼 <RENASCENCE>**  
"현대적이지 않지만, 영원성을 간직하고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다." 독일 사진가 칸디다 회퍼가 개인전을 열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도서관·박물관·공연장 등 문화 공간을 정밀한 구도와 디테일로 담아온 작가는 팬데믹 기간 개보수에 들어간 건축물, 과거에 작업한 장소를 재방문해 작업한 신작 14점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담은 전시 제목은 오랜 역사를 축적한 서구 문화기관의 물리·제도적 '재생'과 팬데믹 이후 공공 영역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교차해 보여준다.  
7월 28일까지 | 국제갤러리 K2 | 02.735.8449



16

OKUKIE GALLERY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 갈라 2024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 무용수들을 만날 수 있는 내한 공연이 열린다. 2021년 아시아 무용수 최초로 이 발레단의 최고무용수 에투알로 승급한 박세은을 비롯해 총 10명이 갈라 공연을 준비했다. 파리 오페라 발레에 공식 등재된 핵심 레퍼토리 18편을 각각 A·B 프로그램으로 나눠 구성했고, 국내 갈라 무대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중편 작품 <정교함의 짜릿한 전율>(안무 윌리엄 포사이스), <내가 좋아하는>(안무 호세 마르티네스)을 만날 수 있다. 피아니스트 손정범과 첼리스트 백승연의 연주가 함께한다.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1668.1352



BALLET GALA OF ÉTOILES IN PARIS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 갈라

17

18

2024 여우락 페스티벌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여우락 페스티벌이 '가장 빛나는 우리 음악의 관측'을 주제로 23일간 아티스트 12명과 함께 무대를 펼친다. 지난 기간 7만 7천여 명 관객을 불러 모으고 평균 객석점유율 90퍼센트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거문고 연주자 박우재가 예술감독을 맡고, 디지털 아티스트 메이킹이 축제 아트디렉터를 담당한다.

7월 4일부터 27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하늘극장·문화광장 02.2280.4114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두 번째 전시

서울역 뒤편 만리동광장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시 플랫폼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두 번째 전시를 연다. '뮤직비디오 협력전'으로는 작고 평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보은 작가와 바쁘게 살아가는 순간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프로젝트오지가 협력해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며, 네이처 프로젝트 1차 공모에 당선된 작가 5명의 '자연' 또는 '사계절'을 주제로 한 작품을 연이어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9월 19일까지 매일 저녁 6시에서 11시 사이에 만날 수 있다.



19

<미래공정: 노면 포스터, 포스터 + 파트너스>

1999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건축 거장으로 알려진 노면 포스터와 그의 자회사 포스터 + 파트너스의 프로젝트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기획전이 7월 21일까지 열린다. 전시 제목 '미래공정'은 노면 포스터와 포스터 + 파트너스의 건축 철학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미래를 향한 이들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건축 모형, 드로잉, 아카이브, 영상 등 총 50건에 달하는 대표 프로젝트, 300여 점으로 구성된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유', '현재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과거', '보다 나는 삶을 위한 기술', '공공을 위한 장소 만들기', '미래건축' 등 다섯 섹션으로 이뤄진 전시실을 누비며 도시에서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7월 21일까지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 02.2124.8800



20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20

대학로극장 퀴드, 지난 2년의 기록

- 10 #1 두살배기 퀴드의 기억
16 #2 전환의 시대, 극장과 기록
18 #3 여섯가지춤, 여섯가지감각
24 #4 발굴에서 세공까지 올해의 기대작 <베를리너>

SCENE



COVER STORY

퀴드어름페스타 극장 한가운데 무대가 세워지면, 대학로극장 퀴드는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른다. 360도 중앙 무대에서 즐기는 스탠딩 공연, 퀴드어름페스타. 올해도 무한한 가능성과 드넓은 음악세계를 지닌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작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4년 7월 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 26 예술가의 진심 소설가 천선란, 쉬지 않고 내쳐 걸으며
32 예술인 아카이브 김민
34 예술인 아카이브 김리호
36 페이퍼로그 연희문학창작촌 이세욱 대화적 관계 안에서
38 인사이드 연극으로 아시아 한바퀴 서울연극센터 '아시아 플레이'

- 42 인사이드 문화로 확장하고 연결되는 노들컬처 클러스터
44 인사이드 지하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협력 신당 프로젝트 전시

- 46 트렌드 바캉스보다 뜨겁게 올림픽 앞둔 프랑스 문화계

COLUMN

- 52 박현갑의 문화의 창 동백화가 강중열의 동백나무숲
54 걷다가 마주친 춤 소유할 수 없는 경험, 소유하는 경험
56 낫말은 새가 들고 날말은 시가 춤는다 빛에서 별로로 향하는 계절에—별님
58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시조, 그 시절의 풍류
60 일상 결의 공예 자수와 장신구에 새긴 이야기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FOCUS

# 대학로극장 퀴드, 지난 2년의 기록

2022년 7월 20일,  
블랙박스가 상징하는  
다양한 사각형quad의  
의미를 담아 대학로극장  
퀴드가 개관했다.  
창작에서부터 발전과  
유통까지 이어지는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동시대적  
예술 실천을 지향하며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의  
공간이 돼준 2년의 서간을  
되짚어본다.

## 2024 하반기 프로그램

<b>7월</b>		
4일부터 6일까지	퀴드초이스	〈다른, 춤을 위해〉Part 1-윤별, 김재덕, 정보경
11일부터 13일까지	퀴드초이스	〈다른, 춤을 위해〉Part 2-이루다, 금배섭, 장혜림
19일부터 21일까지	대관	장세진 〈Haters에게 바치는 체초〉
<b>8월</b>		
22일	퀴드여름페스타	키라라
23일	퀴드여름페스타	글렌체크
24일	퀴드여름페스타	노이스(윤상×이준오)
25일	퀴드여름페스타	해파리
29일부터 30일까지	대관	김남식댄스투룹다 〈해상명부도 해부학 교실〉
31일	대관	지박컨템포러리시리즈 Vol.24 음악전시: blur
<b>9월</b>		
1일	대관	지박컨템포러리시리즈 Vol.24 음악전시: blur
7일부터 8일까지	대관	더하우스콘서트 〈앙코르, 바흐×무브먼트I, II〉
13일부터 15일까지	대관	초록소 〈지붕 위로 내몰린 사람들〉
24일부터 29일까지	퀴드초이스	입과손스튜디오 〈구구선 사람들〉
<b>10월</b>		
3일부터 6일까지	퀴드초이스	입과손스튜디오 〈오류의 방〉
3일부터 27일까지	협력	2024 서울국제공연예술제
<b>11월</b>		
8일부터 24일까지	퀴드제작	〈베를리너〉
26일	퀴드겨울클래식	고잉홈프로젝트
<b>12월</b>		
1일	퀴드겨울클래식	조성현×함경
6일부터 15일까지	퀴드초이스	박근형 계절 연작 시리즈-겨울은 춥고 봄은 멀다
18일부터 19일까지	대관	이희문컴퍼니-프로젝트 굿
22일	대관	최인-MUSICSCAPE 'SERENITY'
27일부터 이듬해 1월 12일까지	퀴드초이스	박근형 계절 연작 시리즈-어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두 살배기 쿼드의 기억

그 기억은 아티스트의 반짝이는 상상력, 호기심으로 가득한 관객의 설렘,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는 제작진의 열정으로 가득하다.

2022년 7월 개관해 꼬박 2년을 보낸 대학로극장 쿼드. 모두에게 열려 있는, 무대만큼이나 무궁무진한 다양성을 지닌 이 블랙박스 극장의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자 '쿼드' 식구들이 모여 수다회를 열었다. 7월이면 3년 차에 들어서는 쿼드의 성장 과정을 빛낸 몇 가지 공연과 사건들!



## 가장 많은 관객이 만난 더 웨일

관객 수, 객석 점유율은 물론, 연이은 티켓 매진과 화제성 등 대학로극장 쿼드 2023년 공연 가운데 단연코 명불허전 1위를 기록한 작품이다. 연극 무대에서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특수분장에 도전한 찰리 역의 백석광 배우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실험정신, 무게만 20킬로그램에 달하는 특수분장 의상을 뚫고 나오는 엄청난 연기력에 경의를 표하게 되는 공연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특수분장, 무대에 올려진 음식 소품들로 인한 벌레 출몰 등... 매회 제작진이 경험한 조마조마한 마음 또한 명불허전이었던 후문. 좋은 작품을 많은 관객이 찾아주셔서 행복하면서도 아찔한 2023년 추석이었다.

연출 신유청, 작사 무엘 D. 헌터  
2023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 '쿼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다페르튜토 쿼드

관객 참여형 공연이면서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고, 스크린으로 전달되는 최소한의 텍스트로 관객이 이동하는 형태를 추구하면서, 일반적으로 공연 중에 허용되지 않는 것들도 허용하게 하는 과제까지! 그야말로 제작 PD로서는 격정과 기대가 동시에 들게 하는 공연이었다. 하지만 그 실험을 위한 모두의 용기는, 정형화된 무대가 주는 안정감보다 극장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적극 연출의 신선한 시각적 시도로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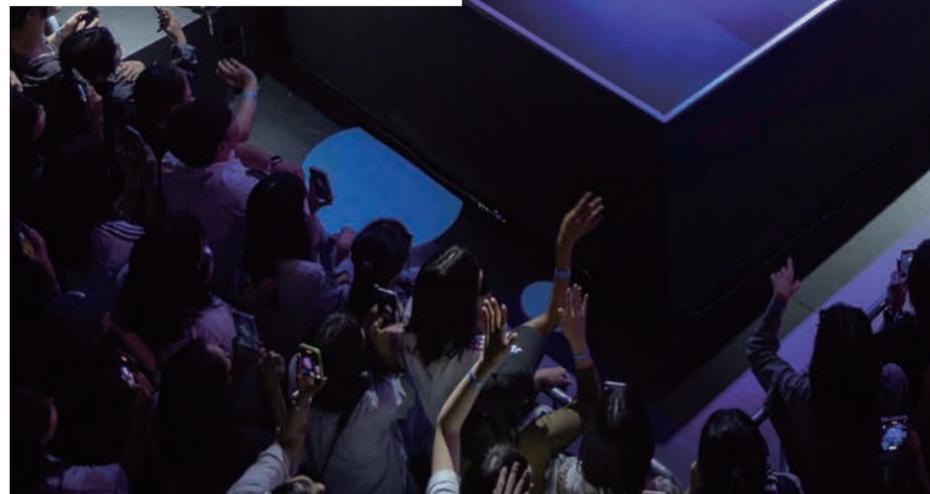
콘셉트·연출·무대미술 적극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 블랙박스, 어디까지 가능할까 퀴드여름페스타

퀴드의 블랙박스 공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연으로 단연 2023 퀴드여름페스타를 꼽는다. 이 공연은 중앙에 무대를 두고 관객이 360도 모든 방향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기획했다. (사실 턴테이블을 활용해 중앙 무대를 회전하려고도 했으나, 제작 예산과 뼈대한 일정으로 인해 무산돼 조금은 아쉬운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좋았다!) 관객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환경으로, 관객은 이곳저곳 이동하며 아티스트의 공연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만날 수 있는 깜짝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담당PD 왈, 초기 단계에서부터 출연 아티스트와 여러 차례의 기획 회의를 거쳐 함께 만든 무대이기에 아티스트와 관객 모두 반응이 뜨거워서 타오를 지경으로 뿌듯한 공연 중 하나라고 한다.

사실 이 공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다. 대학로극장 퀴드에 300명 넘는 관객이 입장하는 스탠딩 공연은 모두에게 처음이라, 관객이 동시에 떠면 위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또한 부대 행사까지 준비됐기에 관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작팀에겐 다양한 염려와 걱정이 동시에 있었다. 팬층이 두터운, 그래서 소위 '핫'하다는 아티스트가 출연하면서 전 직원이 모여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과 스탠딩 면적을 계산하는 등 공연이 진행되는 하루하루가 엄청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출연 씨피카·이디오테일·실리카겔·TRPP·ADG7  
2023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 시대를 뛰어넘어 연결된 무대 접괴기담

대학로극장 퀴드가 착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던 김우옥 연출은 이 아름다운 블랙박스 공간을 보고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접괴기담>의 검은 사막 세트를 이 무대에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 바람이 계기가 되고 운명이 돼 1970년대 뉴욕에서 선보인 구조주의 연극 작품을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선보일 수 있게 성사한 것이라 이 공연은 매우 의미가 있다. 초연 후 약 50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관객 역시나 새롭고 신선한 공연에 놀란 모양이다. 90대 거장 연출가의 열정, 녹슬지 않는 치밀한 연출력,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다.

연출 김우옥, 작 마이클 커비  
2023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 프로듀서가 꼽은 '인생 공연' Zzz

극장에서 잠을 잔다? 극장에 누워서 잠을 경험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작품을 경험한 관객으로부터 이토록 각기 다른 피드백과 흥미로운 해석이 쏟아져 나온 공연은 처음이다. 무대 한가운데에, 때로는 한쪽 벽에 기대어 조명과 무용수들의 움직임, 사운드와 텅 빈 극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퀴드만의 매력, 극장 본연의 모습을 오롯이 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공연에서는 놀랍고도(?) 익숙하게도 코를 '드르릉~' 골며 잠자는 관객을 만날 수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미간을 찌푸리며 흔들려 깨워야 하는 상황. 하지만 공연에서는 코고는 소리마저 공연에 어우러진, 약속된 하나의 사운드처럼 여겨졌다.(웃음) 지중해 연안 지역의 낮잠 문화인 시에스타(Siesta)를 콘셉트로 삼아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공연이 진행됐는데, 만약 밤부터 새벽까지 공연을 했더라면 또 다른 상황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극장에서 잠을 자는 것이 공연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라는, 어찌 보면 황당한 이 공연에선 어느 공연보다 관객이 느끼는 것들이 다채로웠을 것 같다. 여담으로 피곤함에 찌든 모PD는 러닝타임 3시간 동안 깊은 잠이 들어 공연을 잘 즐겼다는 후문!

콘셉트·안무 황수현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오세근



©BAKI

### 박수와 합성이 끊이지 않던 그날 만병통치藥

공연 자체도 흥행했지만, 관객의 반응까지도 가장 뜨거웠던, 한여름 밤 축제 같은 날이었다. 3회 전석 매진, 시야방해석 추가 오픈까지, 극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즐기고 나가는 순간까지 모든 관객의 흥과 도파민이 폭발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계절은 여름이라 더웠지만 안은미컴퍼니의 파격적인 의상과 움직임에, 서도의 파워풀한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관객은 마치 바닷가 야장에 온 듯한 즐거움과 해방감을 만끽하며 돌아간 공연. 만병통치약처럼 신성한 파워를 가진 즐거움을 관객 모두 한아름 느끼셨기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안은미, 음악감독 서도  
2023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 함께하니 좋지 아니한가 신파의 세기

“웰컴 투 치르치르” 인사를 나누며 시작한 <신파의 세기>는 퀴드 제작공연으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누는 것이 많아서인지 창작자와 제작진, 배우 등 퀴드의 모든 스태프가 쌓은 추억이 오래도록 남았다. 연습일지, 제작일지, 이메일, 전화, 카카오톡 등을 오가며 수차례 진행된 치열한 논의와 회의, 서로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 작품을 위해 달려가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다. 특히 공연 내용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하기 위한 고증의 방법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스탄’ 국가들을 만나보는 중앙아시아 워크숍, 극 중 프랑스어 대사를 소화하기 위한 외국어 워크숍, 울참(울음참기) 챌린지, (재활용 취지 또한 담긴) 소품당근워크, 접근성 회차(터치투어, 폐쇄형 음성해설, 한글 자막 및 수어 통역 등) 운영에 관한 술한 고민과 노력이 더해진 공연이다.

작·연출 정진세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BAKI

추억을 안주 삼아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을 헤아리기엔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였다. 이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두 살배기 퀴드에게는 매 공연, 모든 상황이 말 그대로 ‘해 봐야’, ‘겪어봐야 아는’ 상황이었던 것. 안전과 소방법 이슈부터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안에 위치해 있다보니 필요로 하는 여러 부서와의 협조, 소통까지. 되지 않는 것을 되게끔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퀴드의 모든 제작진이 이 극장에서 아무리 힘든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결국 다시금 힘을 내는 것은 관객, 그리고 함께하는 아티스트 덕분이다. 대학로 한가운데 자리잡은 극장에서 어느 곳에서보다 실험적인 기획 공연을 진행해보겠다는 PD들의 포부와 꺼지지 않는 용기는, 흥미를 잔뜩 탑재하고 많은 것을 담을 준비를 한 채 이곳을 찾는 열린 관객들과 도전과 실험으로 눈빛을 반짝이는 아티스트들과 만나 만들어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 전환의 시대, 극장과 기록

팬데믹을 견디고 2022년 탄생한 대학로극장 퀴드, 혼돈의 시대를 살아내는 극장의 오늘을 기록했다.

극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과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결합하는 공간으로서 극장은 결합의 형태에 따라 진화하며 고유한 에너지를 감각할 수 있게 된다. 사전적 의미(‘극장’이란 연극이나 음악, 무용 따위를 공연하거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무대와 객석 등을 설치한 건물이나 시설)로서의 물성만이 아닌, 중첩되는 에너지로 극장은 고유한 상징성을 나타내고 유기체가 되어간다.

극장 ‘퀴드’는 팬데믹이라는 혼돈의 시대에 탄생했다. 어쩌면 ‘탄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전환’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 기존에 자리했던 프로시니엄 무대 형식의 일부 골격을 남겨둔 채 블랙박스 형식으로 개조한 극장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를 마주하며 극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고민은 ‘극장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서 시작한다. ‘어떠한 극장이어야 하는가’나 극장의 계보를 연결 짓는 작업은 그 이후에 이뤄진다.

‘퀴드quad’는 사각 형태의 공간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특정 가치나 방향성에 제한되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치열한 토론의 대학 공론장이기도, 특별한 놀이와 축제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텅 빈 사각의 블랙박스 극장은 창작자의 실험적인 영감을 자극하고 그들이 채우는 에너지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 변칙적인 무대예술을 감각할 수 있게 한다. 더구나 극장 퀴드는 프로시니엄 극장의 구조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 극대화된 물리적 환경이 창작자로 하여금 예술적 실험에 대한 도전적 욕망을 증폭시킨다.

## 전환된 극장이 담아낼 수 있는 것, 담아내야 하는 것

퀴드의 기획자들은 먼저 극장이 소화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늠하기 위해 물리적 장점을 최대화하는 실험 작업을 시도했다. 2023년 첫 작품 <다페르튜토 퀴드>는 무대와 객석, 창작자와 관객의 경계를 없애며 새로운 연극의 작법을 제시했다. 마치 창조주의 시선과도 같은 적극의 연출은 극장 퀴드가 담아낼 팬데믹 이후의 공연 형태에 대한 고민과 극장의 건축

구조에서 상상한 장면들을 무대 위에 표현해냈다. 이후 안무가 황수현은 <Zzz>를 통해 개인적 행위인 ‘잠’을 사회적 행위로 전위시켜 대안적인 감각의 발생과 수용을 실험하면서 공동의 경험이 발생하는 장소로서의 극장을 탐구했다. 이 두 편의 프로듀싱producing 프로그램은 2022년 발표한 <2022 휘이잉>(안무·연출 송주원), <환등회>(공동 창작 공연선·목소·엄지은·여다함·진진모·최윤석)와 결을 같이 한다.

또 다른 시도로 기획자들은 ‘(동)시대성과 세대성이라는 담론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를 놓고 8명의 예술가를 만나 큐레이션 해 보기도 했다. 창작진은 자기 다른 표현 방식으로 기존 작업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영감으로 극장을 채워주었다. ‘퀴드초이스Quad Choice’는 안무가 안수영·안성수·박호빈·안은미, 연출가 신유청·김우옥, 아티스트 그룹 무토, 판소리 공동창작그룹 입과손스튜디오와 함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며 담아내는 동시대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8편으로 프리젠틱presenting한 프로그램이다.

일련의 고민들은 연극 <신파의 세기The scene far from the 20th century>(작·연출 정진세)를 제작하며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다. 정진세는 한국 대중 서사의 주요 정서로 고착된 ‘신파’의 당대성을 특유의 체치있고 날카로운 대사로 풀어내며 우리의 현재를 고찰해보는 극으로 연출했다.

앞선 작품과는 다른 맥락으로 극장 퀴드는 ‘퀴드어름페스타’, ‘퀴드겨울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극장의 또 다른 쓰임을 실험하고자 했다. 완전히 비운 무대 한가운데에 돌출 무대를 만들어 씨피카·이디오테일·TRPP·실리카겔·ADG7의 강렬하고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감각해볼 수 있는 극장형 뮤직 페스티벌을 시도했으며,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공연으로 블랙박스 극장에서의 또 다른 가능성을 실험했다.

이렇게 2023년 극장 퀴드는 31 편의 작품 발표, 138회 공연, 관객 13,469명, 공연장 가동률 94.2%, 사업 수지율 15%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또한 제60회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퀴드 제작 <다페르튜토 퀴드>(연출 적극)), 2023 한국춤평론가상 작품상(퀴드초이스-박호빈 안무 <돌연>),

무용 월간지 ‘뫼’ 올해의 베스트 작품 선정(퀴드 제작 <Zzz>(안무 황수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환의 시대에 전환된 극장이 풀어야 하는 과제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 새로운 극장이 부응해야 하는 것과 수용할 수 있는 것의 간극은 크다. ‘어떠한 극장이어야 하는가’, ‘무엇을 하는 극장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극장 퀴드 기획자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 고민을 지금까지 만나온, 앞으로 만나게 될 현장의 창작자들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

## 2024년 퀴드는 ‘전환’에 더욱 주목한다

올해 ‘퀴드초이스’의 큐레이션을 함께할 창작진 12명에게 기획자들은 ‘본질’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기존 작업을 넘어 다른 방향으로 바뀌려는 작업’을 요청했다. 이는 ‘본래의 것’을 유지하며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 ‘각각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으로의 연출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굳이 장르를 구분하자면 또 다른 ‘전통’으로의 전환과 ‘무용’으로의 전환, 그리고 또 다른 ‘연극’으로의 전환이 퀴드에서 시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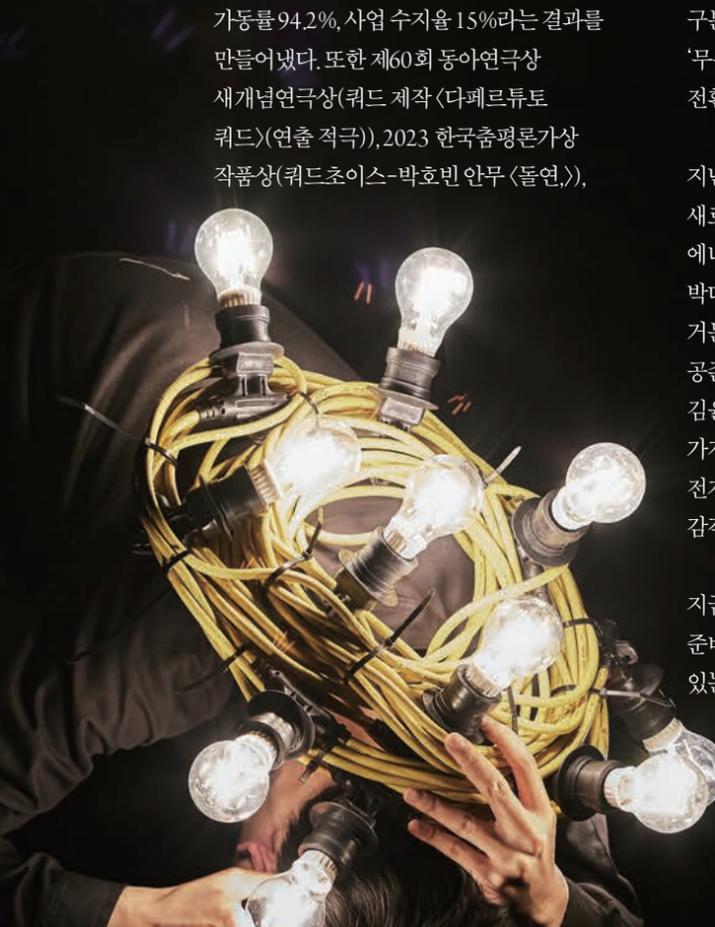
지난 4월 허윤정은 ‘AI와의 즉흥’이라는 새로운 실험으로 전통 악기 거문고의 에너지를 미래예술의 세계로 연결지었고, 박다울·박우재의 조합이 연주해낸 거문고의 세계는 극장 퀴드의 무대를 대립과 공존이 가득한 커다란 우주로 증폭시켰다. 김윤희·황민왕·Jundo는 판소리 ‘춘향가’를 가져와 인간의 음(판소리), 국악기의 음, 전자음의 조합으로 세련된 ‘한판’을 벌여 전환의 감각과 가치를 경험하게 해줬다.

지금 극장 퀴드는 (다른, 춤을 위해)를 준비하고 있다. 인간의 몸으로 구현할 수 있는 미학적 극치를 6명 안무가가

각자의 춤과 감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윤별(발레)·김재덕(현대무용)·정보경(한국무용) 그리고 이루다(발레)·금배섭(현대무용)·장혜림(한국무용)으로 이뤄진 6명의 무용 군단이 해석해낼 춤의 전환을 통해 극장의 또 다른 가능성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퀴드에서 제작되는 공연 프로그램 북 마무리 페이지에는 담당 기획자의 에필로그가 실린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내며 극장과 극장의 사회적 기능, 그것의 예술적 실천에 대해 창작진과 고민해나가는 과정, 그 결합에서 오는 에너지들을 ‘극장과 기록log&theater’을 통해 남기고 있다. 이 글 또한 같은 맥락임을 밝히며 마친다.

**극장과 기록 LOG&THEATER**  
‘극장과 기록’은 극장 퀴드 제작공연 프로그램 북 에필로그 페이지의 제목이기도 하다. 극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연결돼 있는 창작자와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만든 페이지다. 담당 기획자들은 하나의 작품이 준비되고 무대가 채워졌다 비워진 후에도 기억될 시간을 남겨가고 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작품노트 혹은 제작일지와는 다른 쓰임이고자 하며, 따라서 상당히 필자의 전지적 시점으로 쓰인 글임을 전제한다.



# 여섯 가지 춤, 여섯 가지 감각

7월, '퀴드초이스'가 주목한 춤판이 펼쳐진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그려낼 무용가 여섯 명에게 몸으로 감각하는 여섯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 step 1.** 스스로를 무용가라고 느끼기 시작한 순간은
- step 2.** 무용가로서 나의 스타일을 표현한다면
- step 3.** 몸짓이라는 언어가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 step 4.** 예술가로서 최근 관심을 두는 주제
- step 5.** 춤 공연이 어렵게 느껴지는 관객에게 한마디
- step 6.** 대학로극장 퀴드의 첫인상



## 윤별

**1.** 워낙 어릴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해서인지 춤은 자연스럽게 제게 스며들었는데요. 어느 날 한 학부모님이 제 공연을 보고 무용을 그만둔 아이가 다시 무용을 시작했고 꿈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제 마음속에도 이제 누군가에게 꿈이 되는 진짜 무용수가 됐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2.** 스타일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엔터테이너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관객이 저를 보는 시간만큼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3.** 춤은 제가 낼 수 있는 제일 큰 목소리면서, 가장 진실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가 사람에게 닿았을 때는 말보다 훨씬 깊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4.** 관심사는 저번 확대, 즉 무용의 대중화입니다. 절대적인 무용의 본질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새로운 관객들이 무용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5.** 무용 공연은 안무가의 해석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걸 토대로 삼아 자기만의 해석과 관점의 변화를 가미하며 관람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야기로 보이며 더욱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6.** 퀴드는 첫 방문이었는데, 워낙 관객과 가까운 무대를 좋아합니다. 가까울수록 부담되긴 하지만 춤이 더 잘 전달되기도 하고 관객과 눈 마주치며 이야기하듯 춤출 수 있죠. 퀴드가 제게 딱 그런 극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윤별 연출, 박소연 안무 <갓>

<갓>은 박소연의 안무작으로, 한국의 전통 관모인 갓과 서양의 춤인 발레가 만난 작품. 넷플릭스 <킹덤>을 계기로 해외에서도 '갓'이 주목받는다는 점에서 영감을 얻었다. 클래식 발레의 언어지만 한국적인 디테일이 가득한 것이 반전 매력.

## 금배섭

**1.**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과 무용 공연을 볼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다가도 공연이 진행되면서 점차 나의 생각과 감각이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럴 때면 '나도 춤추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낀다.

**2.** 스스로 내 스타일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잘 모른다. 공연이 끝나고 한참 후에야 '이 작품은 이런 거였구나' 하고 느낄 때도 있다. 또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연습이나 작품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기에 '나의 스타일은 어떻다'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3.** 춤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언어 이상으로 다양하게 담아낸다. 작품의 의도를 넘어 개개인의 삶의 경험과 만나서 각자의 언어와 감각, 생각으로 만나는 순간이 매력적이다.

**4.** 내 생각이나 감각이 의도와는 또 다르게 새로운 것들과 만나 발생하는 무엇! 제작 과정은 물론이고 공연 때는 관객 개개인의 감각, 생각과 만나게 된다. 의도를 넘어서, 혹은 의도와 상관없는 것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것들 말이다. 이러한 것들이 감각과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재미있다.

**5.** 무엇이든 처음은 어렵다. '처음'을 거치고 몇 번이 지나면 서서히 적응하고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무용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보다보면 자신만의 감상법을 찾게 될 것이다. 사실 안무가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할 필요도 없다. 작품은 의도와 다르게 읽힐 수 있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방향으로 작품을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춤판아무'는 관객 개개인의 삶의 경험과 감각이 작품의 의도를 넘어서 각자의 방향으로 작품과 만나기를 기대한다.

**6.** 공간을 보면 하고 싶은 작품이 떠오르는 극장이 있다. 퀴드를 보고 작년에 공연한 작품이 생각났다. 애매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애매한 시공간은 어디든 나아갈 수 있고 어디로든 열려 있는 상태다. 그 어딘가로 나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진땀 모으고 있는 상태 말이다. 퀴드는 그런 것 같다. 위치에너지가 100퍼센트인 극장.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어디로든 열려 있는.

### 금배섭 안무 <달아가는>

2020년 듀엣으로 만든 작품이다. 당시 제목은 <퀘도유지>였다. 2021년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춤·신 프로젝트'에서 일부만 차용해

8분 길이의 솔로 작품으로 만들었고, 2023년 한국현대춤작가12인전에서 <달아가는>이라는 제목의 25분짜리 작품으로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교감하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했다. 사람과 교감하지 못하고, 동물과 교감하지 못하고, 식물과 교감하지 못하고, 사물과 교감하는, 아니 사물과는 교감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신체와 감각이 사물화되는 사람을 그려보고자 했다.

## 김재덕

**1.** 첫순간이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언젠가부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걸 느낍니다. 오죽하면 길에서 저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보면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죠. '재덕아 가만히 좀 있어~' 이때 나름 느낍니다. '아, 나는 무용가구나!'

**2.** 저는 두가지 춤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타격'이라 칭하는 'Breathing attack'과 '강한 생기를 감추고 죽어가는 듯한 나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것을 체계화시킨 'Dying tree'. 이렇게 두가지의 춤 메소드가 곧 저의 춤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3.** 무대에서 배우나 무용수가 '사랑해'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알 만한 사랑스러운 제스처를 하지만 관객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사랑해'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제스처를 했는데 관객이 이해하는 경우. 몸의 표현과 기호 사이를 정의할 수 없는 순간이며, 가공되지 않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춤이 희망을 내포하고 있고 매력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4.** 최근 시간성(동작 변형의 시간성)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동작일수록 형태와 변형이 중요한데요. 변형의 속도(시간성) 또한 관객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잘 기술되어야 하죠. 단원들과 연습하면서 어떠한 동작에 대한 시간성에 관해 소통할 때 이것을 '연장'이라고 하는 게 좋을지 '증가'라고 하는 게 좋을지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참! 그리고 선한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5.** 공연이 어렵다기보다는, 한 안무가의 스타일이 한 관객과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쉽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선하고 가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6.** 퀴드는 아주 멋진 공간입니다. 실험적인 공연을 하기에도 적합한데요. 공간만으로 많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하더군요. 공공기관에서 실험적 시도를 위해 이곳의 문을 열어준다는 게 너무나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덕 안무·음악 <Breathing Attack II 中>**  
안무가의 춤 메소드를 그 자체로 담은 작품이다. 첫 번째 시리즈를 2015년 공연했고, 두 번째 시리즈를 에스토니아 춤 축제에서 의뢰받아 발표했다. 작품은 35분 길이이지만 갈라 공연에서는 하이라이트(약 17분 길이)만 발췌해 선보이기도 한다. 춤인 듯 무협인 듯 독특한 동작의 변형 속에서 다양한 속도를 통해 '불협 같은 리듬'을 선사한다.



## 장혜림

**1.** 저는 지금도 무용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용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잘하고 싶고요. 이것을 통해 무언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무용가'라는 말을 붙여줄 때는 쓰지만, 뒤에 붙은 '가'라는 글자가 저에게 엄청나게 큰 존재처럼 느껴져서인지 스스로 무용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용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춤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 진정성 있는 춤.

**3.**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어떤 감정의 교류든, 생각의 교류든, 말이 아닌 감각으로 무언가 공유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를 경험하게 돼요.

**4.** 전통, 시대, AI, 미래, 과거, 자연, 인간. 이런 단어들 사이를 사유하며 살아갑니다.

**5.** 저는 춤을 시에 비유해요. 시를 읽다보면 이해가 안가는 구절이나, 여백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걸 무얼까 생각하며 나름의 상상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가죠. 저는 춤의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답을 찾고자 바라보다, 나의 무한한 상상과 함께 작품을 바라본다면 더욱 편안히 받아들여질 겁니다.

**6.** 퀴드 공간은 편안했어요. 공연자를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느낌이었죠. 퀴드라는 공간도, 그곳을 소개해주는 분들도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장혜림 안무 <이야기의 탄생>**  
땅에 관한 사유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전통예술에서 볼 수 있는 가무악 총체성에 관한 방법론과 한국 춤을 추며 안무가 안에 담겨 있는 생각을 움직임과 음악으로 풀어냈다. "내 이름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때부터 나는 땅을 사랑했습니다. '혜림'은 은혜로운 숲이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숲은 땅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지요. 어린 손으로 나무 목 자를 적으며, 큰 숲을 상상했어요. 열매 가득한 나무 사이로 새가 높이 날아오르고 들짐승은 쉬어가는 생명이 깃든 숲. 춤을 추며 나는 아주 깊은 땅을 상상합니다. 뿌리 같은 발바닥으로 끌어올린 땅의 기운이 몸에

길을 내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통해 보이는 움직임은 모두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여 나는 매 순간 땅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대지를 기억하며, <이야기의 탄생>을 무대에 올립니다."

## 정보경

**1.** 스스로 나의 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마냥 춤이 좋아 뿔뿔이 빠져 지냈죠. '나는 어떤 춤을 추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순간이 '무용가'의 첫 모습 아닐까요.

**2.** 많은 것들이 생동하는 에너지 넘치는 춤, 그리고 그 속에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작품. 휴머니티가 느껴지는 작업의 방향성이 제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몸짓이라는 언어는 세상에 뿌려진 어떤 언어로도 설명되지 못하는 것을 무용수의 눈동자, 손끝, 숨소리 하나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줄 때 가장 매력적이지요.

**4.** 사람ियो.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며 증강현실·가상현실·인공지능을 이용한 안무 개발과 퍼포먼스가 가능해지고 있죠. 저는 인간이 만드는 고유한 것에 더 큰 매력을 느껴요. 인공지능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지만 인간의 창의성, 감정,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독창적인 표현은 결코 복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춤은 인간의 몸짓, 감정의 미묘한 표현, 즉흥적인 순간들이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야말로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 인터랙티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경험할수록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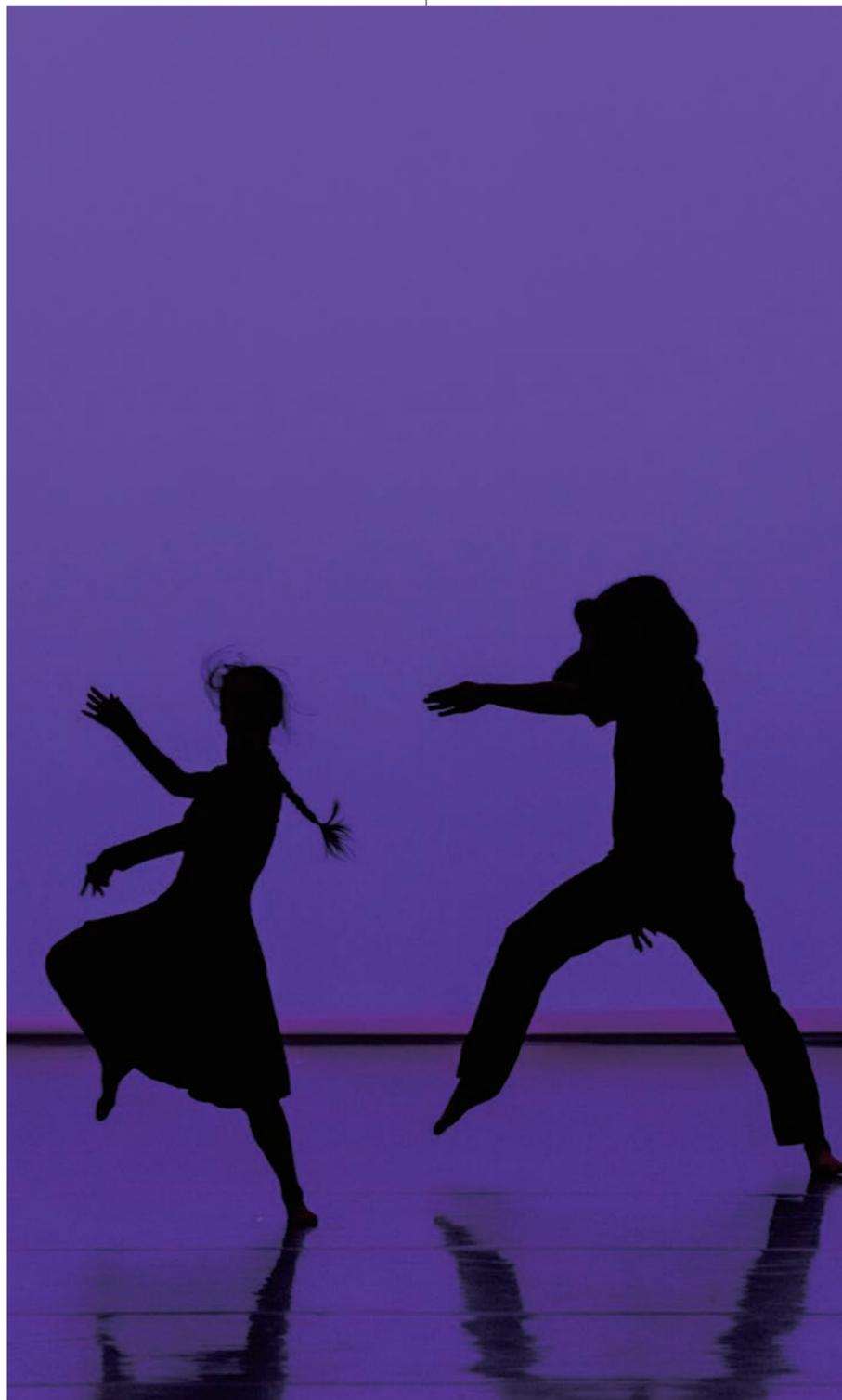
**5.**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느끼는 본질적인 감정 그대로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에 빠진다면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그때의 감정이 다시금 찾아와 춤 공연이 주는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 쿼드와 같은 가변형 무대의 공간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처음 마주했을 때 이 공간만을 위한 작업물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공간이 주는 특수성은 예술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작

동기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는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매우 매력적입니다.

**정보경 안무·연출 <안녕, 나의 소녀: 디렉터스 컷>**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예술계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어둡고 아픈 작품을 보며 안무가는 우리의 예술이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졌고, 예술이란 결핍되고 결여된

무언가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안녕, 나의 소녀>는 안무가의 아버지를 모티프로 한 가상 인물 '그르메'를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의 온기를 남겨주고자 만든 작품이다. 2022년 초연해 제1회 서울예술상을 수상한 <안녕, 나의 그르메>가 겨울의 숲이라면, <안녕, 나의 소녀>는 청량하고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



## 이루다

**1.** 네살 때 글보다 발레를 먼저 배웠어요. 전형적인 클래식 발레에서 벗어나고자 20여 년간 신은 핑크 투슈즈를 제 손으로 직접 검게 칠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제 정체성을 찾는 느낌이었고, 내 색깔이 깃든 나만의 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방향성을 찾아가면서 무용가로서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 빛보다는 어둠, 백조보다는 흑조,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을 주제로 삼은 저에게 '블랙'이라는 컬러 자체가 하나의 스타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끄는 블랙토 무용단이 검은색 발레 슈즈를 의미하기도 하고, 블랙이라는 주조색에서 파생되는 이미지가 제 작품의 원동력이다보니 계속해서 블랙의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3.** 춤은 그 사람의 경험과 삶이 그대로 표현되는 가장 순수한 몸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나의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었다는

것을 막이 내리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절제된 비언어적 행위로 내 것을 꺼내는 표현을 통해 진짜 나를 찾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4.** 개인 무용단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창작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자생력에 관심이 있어요. 경영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이 많다보니 무용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고, 순수예술가도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좀 더 닿을 수 있을지도 연구하고 있어요.

**5.** 무언극이다 보니 무용 공연을 난해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갤러리에서 현대미술을 감상하듯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무용의 추상성을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은 답이 없고 취향과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해석으로 작품을 느껴본다면 아주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작품에는 영상 미디어를 활용한 장면이 많은데, 배경 영상에 등장하는 이미지의 상징성을 유심히 봐주시는 것이 관전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6.** 쿼드는 공간 자체가 젊고 실험적인 느낌이 들어요. 다양한 형태의 구조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 이번 작품에서도 발코니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구상했습니다.

### 이루다 안무 <Nu Black>

안무가는 블랙토 무용단 창단 이후 2013년부터 블랙을 주제로 한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그중 <Nu Black>은 그간의 블랙 시리즈보다도 시청각적 자극에 중점을 두고 연출, 발레 움직임 해체해 안무를 구성했다. 빛의 파장을 반사하지 않으면서 색상 또한 띠지 않게 되는 가장 어두운 상태인 검정, 빛이 부재한 색상을 통해 경계 없는 검은 공간의 무한한 심연을 드러낸다. 작품 제목은 '지금'의 새로운 '블랙'을 상징하며 다양한 관점을 통해 '블랙'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했다.

# 발굴에서 세공까지 올해의 기대작 〈베를리너〉

17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희곡상 첫 주인공이 된 ‘베를리너’가 퀴드 창작극 제작 시스템을 거쳐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개관 3년 차 대학로극장 퀴드는 실험적인 무대예술의 다양한 ‘소개’와 ‘제작’을 큰 축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제작’의 토대를 단단히 하고자 자체적인 창작 레퍼토리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퀴드만이 할 수 있는 창작극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렇게 제작된 작품을 극장의 레퍼토리로 축적하는 일이다. 새로운 대학로 시대를 마주하며 극장 퀴드와 함께할 작품을 통해 이 시대의 연극에 관해, 그리고 연극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실천에 관해 관객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

이에 ‘서울희곡상’을 통해 발굴된, 동시대적 주제와 담론을 담은 텍스트가 퀴드의 창작극 제작 시스템을 통해 무대화 과정을 거쳐 관객에게 가닿을 예정이다. ‘창작-발전-유통’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제작 시스템의 첫 시작을 여는 작품이 바로 〈베를리너〉(작이실론)다.

‘베를리너’는 지난 연말 발표된 제1회 서울희곡상 수상작이다. 극작가·연출가 김명화, 극작가 김은성, 배우 남명렬, 극작가·연출가 박근형, 연출가 박정희로 구성된 제1회 서울희곡상 심사위원회는 응모작 178편 중 신예 작가 이실론의 희곡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베를리너’는 가상 국가에서 벌어진 내전이 매개가 돼 해외 공항에 발이 묶인 사람들의 짧은 체류기를 다루며, 동독에서 서독으로 그 경계를 넘고자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차 편집한다. 작품은 경계에 대한 다각적 탐색을 정교하게 설계한 작가의 노력이 돋보인 수작으로, 아직도 도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고통을 성찰하게 하며 작품 속에 마련된 여러 연출적 기호 역시 대학로극장 퀴드에서의 공연에 잘 어울릴 것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퀴드는 간결한 대사와 구조, 무대화의 가능성을 가진 신선한 희곡을 가장 탁월하게 무대 언어로 창조해낼 창작진과 배우를 상상하고, 이들의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촘촘히 연결해 무대 위 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아마도 세대별로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감각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냉전 시기를 겪은 세대는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로 나아간 희망의 도시 이미지를, 독일 통일 이후 태어난 세대는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예술 도시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베를린’을 다르게 감각하는 모든 세대가 누군가의 일상과 나의 비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과 분쟁, 테러를 목도하며 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며 그려질 ‘베를리너’의 서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무엇일까.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

**극작가를 기다립니다, 제2회 서울희곡상 공모**  
 지난해 첫 수상자를 낸 서울희곡상 공모가 두 번째 시작을 알렸다. 우수한 창작 희곡을 발굴해 연극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극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기회다. 서울희곡상은 창작 희곡1편을 선정, 극작가에게 상금 2천만 원을 수여하고 작품은 대학로극장 퀴드의 제작 시스템을 거쳐 무대에 오르게 된다.  
 등단 여부, 소재, 분량과 관계 없이 타 공모에 당선되거나 발표되지 않은 창작 희곡이라면 어떤 작품이든 응모할 수 있다. 원고와 작품 개요서,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전문가 서류 심의와 토론 심의를 거쳐 당선작을 발표한다. 우수한 희곡을 시상하는 것만 아니라 프로덕션 과정을 염두에 두기에 희곡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무대화 가능성과 제작 실현성 등을 함께 검토한다.  
 지난해 진행된 제1회 서울희곡상은 178편의 후보작이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올해는 극작가들이 집필과 탈고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 시기를 앞당겼다. ‘베를리너’를 비춘 조명이 이번에는 어떤 작품에 드리울지 기대를 모은다.

---

접수 | 9월 26일까지  
 문의 | 서울문화재단 누리집(sfac.or.kr)  
 서울연극센터(02.743.9337)

---

# ASSOCIATED

- 예술가의 진심
- 소설가 천선란, 쉬지 않고 내쳐 걸으며
- 예술인 아카이브
- 김민
- 김리호
- 페이퍼로그
- 연희문학창작촌 이세옥
- 인사이드
- 서울연극센터 ‘아시아 플레이’
- 노들컬처 클러스터
- 신당 프로젝트 전시
- 트렌드
- 올림픽 앞둔 프랑스 문화계

# 소설가 천선란

## 쉬지 않고 내쳐

## 걸으며

소설가 천선란은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대만에서 독일·튀르키예·캐나다로 이어지는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며 보낸 2024년 상반기에 쉬지 않고 걸었고, 때로 달렸고, 새벽에는 글을 쓰는 루틴을 지켜나갔다. 하지만 “걸을 수 있는 만큼 어디든 가고 싶다”는 그의 말은 무엇보다, 그가 쓰는 소설에 적용되는 말일 것이다. 소설 『천 개의 파랑』의 뮤지컬을

보면서 초반에는 결말을 후회하고, 종래는 모든 문장의 이유를 깨달으며 울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소설이 만들어낸 세계의 창조자이면서 그 누구보다 충실한 독자였음을 알게 해준다. 쉬지 않고 소설을 발표해온 그는 근래 두 편의 에세이를 내놓았다. 팟캐스트 <일기떨기> 멤버인 윤혜은·윤소진과 공저한 『영망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sup>2023</sup>를 지난 연말에

선보였고, 최근에는 첫 단독 에세이이자 그의 SF 입문작이라는 디지털에 대한 책 『아무튼, 디지털』<sup>2024</sup>을 발표했다. 이 두 권의 책에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어머니의 투병 생활과 그에 따른 위기 혹은 용기의 시간이 고스란히 실렸다. 천선란 소설 세계의 분기점이 될 것만 같은 이 에세이를 중심에 두고, 그가 소설과 함께한 반년간의 모험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에 신간 에세이 『아무튼, 디지털』이 나왔습니다. 단독 저서인 에세이로는 이 책이 처음이고요. '아무튼' 시리즈를 제안받았을 때 디지털을 떠올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무튼' 시리즈는 '덕심'으로 뭔가를 꾸준히 해온 사람이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6개월 넘게 걸기부터 시작해 여러 테마를 두고 고민했어요. 도저히 정할 수가 없어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불현듯 제가 누군가한테 디지털 이야기를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 얼마나 감동적인데... 그래서 이걸 써야겠다고 결정하게 됐어요. 제 SF 입문작이 <디지털 어드벤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디지털』은 디지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작가님의 10대부터 20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디지털과 영원히 이별하는 이야기다"라는 문장은 그렇게 '나를 키운 세계와 작별하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벅차서... 어떤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끝없이 이어지잖아요. 디지털도 시리즈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최근 나왔던 극장판 <디지털 어드벤처 라스트 에볼루션: 인연>2021도 그렇고, 디지털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만큼은 명확하거든요. 잔인하다 싶은 정도로 영원한 이별을 말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그게 제 유년기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장면이었다 싶어요. 저는 디지털을 보면서 디지털 세계로 가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20대가 되고 엄마를 돌보게 되면서 더 이상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됐죠. 디지털 세계로 간다는 기대가 사라지면 살기가 지루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즐거움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창작을 하며 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때 실감해요. 나도 하나의 세계와 영원히 이별한 거구나, 하고.

성장한다는 말을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통과하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디지털이 필요했던 시간, 또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차분하게 써낸 글이더라고요.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이 작가님께 발현된 방식이 소설을 쓰며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내가 만든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경험이었구나 싶었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창작하는 방법을 말할 때 구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 대신, 마치 3D 안경을 쓴 것처럼 제가 만들어낸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는 상상을 하거든요. 제가 풀썩을 헤치면서 걸어가면 앞에 뭐가 나타날지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글을 써나가요. 그러다보니 인물들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소설을, 특히 장편 소설을 완결지을 때마다 디지털과 이별하는 마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나, 이 인물을 다시 못 만나겠구나' 하면서 소설을 계속 써나가요. 그래서 독자분들이 캐릭터를 사랑해주실 때 더 좋고요.

저는 작가님이 치트키에 가까운 정도로 잘 쓰는 감정이 슬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님의 인물들이 가진 어두운 일면이야말로 독자들이 이입하면서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라고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날아가듯이 포착하기와 작 가리אות는 감정을 파고들면서 쓰기는 다를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저는 슬픔의 감정을 파고들 때 신나요. 슬픔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슬픔 중에는 고독이나 우울,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감정도 있고요. 뭉뚱그려진 슬픔의 정서를 제 나름의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할 때, 세상을 해석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확한 표현으로 그 마음이 전달되면 작가로서 기쁨을 느끼죠. 슬픔, 고독, 외로움에 관해 쓸 때 집중해서 정교하게 쓸 수 있어요. 풀썩을 헤매는 느낌으로 묘사해나다가 제가 상상한 감정의 형태와 문장이 딱 맞아떨어질 때의 희열이 있어요.

팟캐스트 <일기떨기> 멤버들과 함께 쓴 에세이 『영망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와 에세이 『아무튼, 디지털』이 작가님의 20대와 30대를 가르는데는 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다음에 출간될 소설이 무엇일지 궁금해합니다. 두 에세이에서 작가님의 20대 중반까지의 삶, 작가로 데뷔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털어놓고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10월에 문학동네에서 소설집이 나와요. 기존 발표작들과 미공개 작품 하나를 모아서 내는 책이고요. 또 끝나지 않는 시나리오 작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쓰고 싶은 건 장편 소설이 맞아요. 확실히 『아무튼, 디지털』을 쓰면서 흠뻑뿌놓은 제 이야기를 싹 모으는 느낌이 낫거든요. 이 작업이 제게 왜 필요했나면... 제가 맨날 꿀이는 김치찌개를 반복해 꿀이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한번 크게 고아서 끓인 다음, 그 핵심만 추려서 완전히 다른 국을 만드는 기분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창작하는 인물이나 세계가 작다고 생각하곤 하거든요. 세계는 크지만 정작 이야기의 사이즈는 특정 인물에 집중돼 있다고요. 이걸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슬픔의 정서도 개인보다 인류 역사에 가까운 얘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작가님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세계와 거대한 슬픔이라니, 신나는데요. 이야기의 스케일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나요.

노력 중 하나가 제게는 여행이고요. 어느 도시에 가든 꼭 그 나라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과 유적지에 가요. 행사를 위해 낯선 도시에 방문할 때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요. SF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독일에 갔을 때는 시인 파울 쉘란Paul Celan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나치 수용소에서 부모님을 잃고 훗날 자살로 생을 마감한 후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이야기를요. 이런 이야기를 독일인 스타프에게서 들으면서 언어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언어를 도구 삼아 차별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렇다면 궁극적 순간에는 언어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깨보는 연습을 하고, 소설로 발전시켜보기도 하고요.

독일에서의 활동을 잠시 언급해주셨는데, 작가님의 상반기 일정을 보면 '천선란 월드와이드'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활동의 폭이 넓더라고요. 한국 SF 문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2월에는 타이베이국제도서전에 갔어요. 도서전에서 『천 개의 파랑』 연계 행사를 했고요, 『어떤 물질의 사랑』2020에 있는 동성애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대만은 동성혼이 법제화됐잖아요. 왜 한국은 아직도 동성혼 법제화가 되지 않는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대만에서는 한국 SF 소설에 페미니즘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와 달리 독일에서는 SF를 기피한다는 인상이 컸어요. 독일에서 『천 개의 파랑』 낭독회를 하고 질문을 받으면, 인공지능이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이

꼭 나왔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답했나면…  
“한국은 이미 당신들이 무서워하는 디스토피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뮌헨과 베를린을 방문했죠.**  
맞아요. 대만을 다녀와서 말레이시아에 가 원고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독일로 넘어갔어요. 올해에는 저와 서수진 작가님이 뮌헨 레지던시 프로그램AIR-M Villa Waldberta에 선발됐어요. 원래는 3개월 프로그램인데, 저는 일정 때문에 한 달밖에 있을 수 없었지만요. 때마침 『천 개의 파랑』 독일어판이 출간돼 베를린 문학의 집Literaturhaus Berlin에서 낭독회를 하고 질문을 받은 거죠. 그 뒤 뮌헨 레지던시에 머물다가 행사를 한 번 했어요. 20명 정도 오던 행사라는데, 이번 행사에는 80명 정도가 몰린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 <천 개의 파랑> 뮤지컬을 보고 튀르키예로 가서 에르지예스 대학에서 한국문학번역원과 연계한 행사를 했어요.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어떤 물질의 사랑』을 번역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종강 직전에 작가를 직접 초청해서 발표하는 자리에 제가 가게 된 거죠.

**튀르키예의 독자들은 『어떤 물질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하던가요?**

『어떤 물질의 사랑』이 귀어적인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귀어'라는 단어를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보니 학생들이 이 소설을 어떻게 봤을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대부분 여학생이었어요. 꿈이 많고, 진취적이고, 차별이나 억압이 없는 시대에 대한 꿈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튀르키예에서 캐나다로 가서, 제가 참여한다큐멘터리 <지구 위 블랙박스>2023를 가지고 밴프 월드 미디어 페스티벌Banff World Media Festival에 참여했구요.

**여행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인가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얻는 에너지와 혼자 있으면서 얻는 에너지를 어떻게 조율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혼자서가 좋은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를 만나다 호기심이 크거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동기가 제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런 힘을 잘 모아놨다가 소설을 쓸 때 꺼내 쓰는 듯해요. 연료처럼.



**제가 아는 작가님은 원고 일정을 최우선에 두고도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하는 분이거든요. 원고를 미루지 않는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꼭 듣고 싶습니다.**

글을 시작하면 뭘 하든 원고가 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써요. 걸어서 이동하다가도 다음 장면이 생각나면 잠시 멈춰서 써놔요. 단어만 적어두더라도 써놓는 식이죠. 그렇게 모아둔 조각들을 오전 중에 몰아서 쑤어 붙이듯이 써요.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도 하루 종일 작업하는 느낌이에요. 독일에 있는 동안은 매일 공원을 걸었는데요. 공원을 다 걸으면 2시간이 걸려요. 이번에는 걷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음악도 안 듣고 새 소리 들으면서 그냥 걸었어요. 상반기 동안 제가 너무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 이러다가는 글에 질릴 수도 있어'라는 위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침에 일을 바짝 하고 저녁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걸기를 연습했어요.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의 작업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단편은 소재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요. 이걸로 써야겠다고 소재가 분명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영화를 보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여행지에서 받는 충격으로 글을 쓸 때도 많고요. 그래서 소재가 정해지면 3~4일 안에는 캐릭터와 플롯을

완성해요. 그걸 계속 굴리죠. 첫 문장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런 작업을 지속해요. 장편 소설은 반대로 인물이 어떤 소리를 처음 내는지 기다려요. 『나인』을 쓰던 때는, 식물과 관련한 청소년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인이라는 캐릭터가 식물과 관계되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힘으로 이야기를 쑤 구성해나갔어요. 장편은 초고까지 3개월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요. 그 이상 시간을 끌면 제가 힘을 잃더라고요. 최대한 빠르게 초고를 끝내고 그다음 천천히 수정해요.

**지난 5월 『천 개의 파랑』이 뮤지컬로 만들어져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랐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세 번 봤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왜 마지막 결말을 저렇게 썼지, 하고 후회가 드는 거예요. 오래전에 쓴 소설이라 제게서 멀어졌는데 콜리의 마지막을 두 눈으로 보니까 콜리를 살릴걸, 싶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볼 때는 그 장면에서 관객의 얼굴을 봤어요. 그 순간 관객의 얼굴이 제 소설을 읽던 독자의 얼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북토크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소설을 읽는 순간의 독자 얼굴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뮤지컬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설을 읽는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열하는 관객분들이 많았죠. 3회차 관람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아빠랑 언니가 왔어요. 아빠의 인생 첫 뮤지컬이었다고요. 아빠랑 언니가 1층에 앉고, 저는 2층에 앉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오니까 제가 썼던 모든 글을 왜 썼는지 다 기억나는 거예요. 저 장면에서 저 문장을 왜 썼는지 분명히 떠오르면서… 공연 내내 울었어요. 울면서, 잘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천 개의 파랑』은 연극과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해외판도 여럿 나오고, 정말 먼 곳까지 갔네요. 독자님들이 자기의 사연을 덧붙이고 덧붙이면서 제가 썼던 소설보다 훨씬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천 개의 파랑』을 떠나보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온전한 내 작품이 아니고, 이 작품은 저보다 더 커졌다고요. 많은 사람들 입에서 이야기되면서 기쁨은 왜곡되고 변질도 되겠지만 이미 저를 떠난 작품이 됐어요.**

**SF를 주로 썼지만, 언젠가 써보고 싶은 다른 장르가 있다면요?**

판타지를 쓰고 싶어요. 특히 판타지 웹소설이요. 영화로는, 호러를 써보고 싶어요. 슬프면서 무서운 호러를요.

**이제 30대가 됐고, 20대의 가장 치열한 시기를 에세이로 정리하셨는데요. 어머니의 간병에 많은 시간을 쓰던 20대 중반의 천선란 작가님을 판타지적인 방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싶을 듯해요. 왜냐하면 '너 나중에 소설가 돼'라는 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괜찮아져'라는 말도 소용없을 것 같거든요.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내가 나에게 온다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 촬영 협조 |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독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독'에는 예술영화관 라이카시네마(지하1층~지상1층), 카페 모그(2층), 스페이스독 스튜디오(3~4층)가 자리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창작이 흐르는 복합 문화 공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laikacinema.com](http://laikacinema.com)

# 김민

무용/현대무용

b.1998

@be\_tha\_man

@grouptob

2024년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

↓ 김민 안무 <BARCODE>



“ TOB GROUP에서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입니다. 컨템퍼러리 아티스트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현시대가 필요로 하는 예술 작품, 무용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저는 스무 살 늦은 나이에 무용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꿈은 파일럿이었는데요. 저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경외감,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레 '우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영상 매체를 통해 창작이라는 영역을 접하게 되었고 무대라는 미지의 공간에 압도돼 빠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 저는 스스로를 아직 예술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안무가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가지는 힘을 인정하게 됐으며, 작품을 만드는 안무가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 2022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에 초청됐을 때 저는 24세였습니다. 당시에는 동료들과 함께 해외에 공연하러 간다는 막연한 새로움, 제 안무작으로 약15회차의 공연을 타지에서 선보일 수 있다는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만이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너무 많은 관객이 공연장을 찾아와주셨고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기립박수와 함께 끝나지 않는 커튼콜은 어린 나이였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황홀감이었습니다. 또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작품 안에서 깊은 메시지와 의미를 발견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재미있는' 동작과 '색다른' 연출이 뭐가 있을까 하는 표면적인 동기로 작품을 제작했지만, 제가 만난 관객들은 작품 안에서 의미를 찾고, 나아가 본인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까지 연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함과 겸손함, 건강한 자신감을 얻었으며 한 작품이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힘을 인정하게 되면서 안무가라는 직업은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은, 친절한 추상성을 ”

“ 쫓는, 현시대가 필요로 하는 작품을 만드는 안무가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

“ TOB GROUP을 지금 이 자리까지 올려준 저의 대표작은 <BARCODE>와 <Are You Guilty?>입니다. 저는 막연한 추상성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해와 감상이 가능해야 추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친절한 추상성을 좇고자 합니다. 매 작품에서 저는 관객에게 시점을 제시합니다. 관객들이 어디를 봐야 하고 누구의 시점으로 감상해야 하는지 설정해놓는 편이기에 많은 분들이 비교적 편하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주로 사용하며, 무용 작품 안에 서사를 넣고자 합니다. 무용 작품 안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기는 순간, 어린이극 혹은 쉬운 작품으로 치부되기 마련인데, 저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저만의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

“ 보통 소품에서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접근하며, 그 현상을 통해 다른 의미를 도출해 내는 직업이 안무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TOB GROUP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TOB는 'Think Outside the Box'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로 주어진 틀(상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할 것을 의미합니다. 소품을 관찰하고 연구하다보면 자연스레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생각나고, 그 메시지를 몸 혹은 표정으로 다양한 소품과 연출을 통해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인상 깊게 본 예술 작품'이라는 질문에 떠오르는 작품도 없고, 머뭇거리게 되네요. 최근 많은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여유로운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작품을 보면 분석하려 하고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안무가 혹은 연출가의 의도를 파악하며 공부하고자 한, 마치 직업병 같은 태도로 인해 좋은 작품을 음미할 기회가 없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조금은 내려놓고 저도 순수한 관객의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구분 짓지 않는 '퍼포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추상성에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많은 장면과 동작을 오로지 관객의 해석에 맡기는 순간과 시도도 매력적이지만, 바쁜 일상에서 편안한 배우의 경계가 흐릿한 한 편의 작품을 텍스트와 움직임 모두 활용해 제작하고자 합니다.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장면이 바뀌면 댄서가 나와서 춤을 추는 단편적인 콜라베이션보다는, 경계를 ”

“ 구분 짓지 않는 '퍼포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추상성에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많은 장면과 동작을 오로지 관객의 해석에 맡기는 순간과 시도도 매력적이지만, 바쁜 일상에서 편안한 감상을 원하는 관객의 경향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소 친절한 추상성을 지니고 서사성이 깊게 담긴 무용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



## 김리호

시각예술/디자인  
@kimliho  
신당창작아카데미 14·15기  
입주작가(2023-2024)

“저는 컨셉추얼 디자이너이자, 시각예술 작가 리호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서 컨셉추얼 디자인 Conceptual design 을 공부하고, 지금은 신당창작아카데미에 입주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셉추얼 디자인은 순수예술과 디자인이 중첩되는 분야로, 그래픽·제품·패션·인테리어 등 전통적인 디자인 분야를 넘어 소재와 매체의 제한 없는 디자이너의 메시지 전달을 중요시합니다. 순수예술의 형식을 빌리지만 사용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경험을 좀 더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디자인을 통해 경험하게 합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배설의 순간을 유머러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아트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단과 종이같이 부드러운 재료를 좋아하긴 하지만, 장르와 소재, 매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가가 되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못 그린다’, ‘소질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미술에 재능이 없고 순수예술은 타고난 천재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직업을 가진다면 꼭 시각예술 분야이길 바라며, 디자인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학교에서는 아름답고 완성도 있는 결과물보다 생각하는 과정을 더 중요시했고 과정 없는 결과물은 그것이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져든 평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잘 만든 작품’과 ‘잘 그린 그림’에 대한 생각을 부셨습니다. 그림에도 예술은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저의 이상하고 못 그린 그림들을 진심으로 잘 그렸다고 하고, 저만의 표현 방식과 관점을 검열하지 말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표출한다면 분명히 멋진 예술가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주자, 저 또한 자신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진정한 예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신고서와 코로나19 검사 신청서 직업란에 예술가라고 썼을 때,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았을 때, 주변에서 저를 ‘작가님’이라고 부를 때 예술가라고 느낍니다. 사실 졸업 후 더 이상 학생이 아니게 됐을 때는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업을 한다고 말하곤 했지만, 작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지, 이걸로 뭘 하는지 물어보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매는 커녕 발표도 해 본 적이 없으니, 스스로도 예술가보다는 ‘예술가 지망생’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작업을 꾸준히 하는 데도 무직이라고 쓰는 게 마음이 아파 그다음부터는 그냥 예술가라고 썼는데, 그 순간 나도 예술가구나 싶었습니다.”

“대표 작품은 ‘유머 오브 언캐니(Humor of Uncanny)’ 시리즈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만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요, 몸에 큰 상처가 나면 징그럽고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보고

싶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피지 찌기 콘텐츠 역시 지지분하다고 생각해도 저도 모르게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쾌한 것들이 순식간에 신선하고 이끌리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양가적 감정의 스펙트럼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언캐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유머 오브 언캐니>는 배설의 순간을 다룬 작품입니다. 코딱지 파기는 지지분하고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 힘든 모습이지만 막상 굉장히 시원하고 즐겁습니다. 어른들은 똥, 코딱지 같은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어린이들은 똥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저는 지지분하면서도 즐거운 배설의 순간이 선사하는 양가적 감정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은 입체 조형, 페인팅, 애니메이션 비디오, 체험형 워크숍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입체 조형 작품들은 코딱지를 숨기고, 코털을 뽑고, 피지를 짜고, 번기에 앉아 보는 등 배설의 순간을 직접 만져보고 착용하며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관람객과 상호작용하고 주제를

직관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즐거운 예술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조건이나 강제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영감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너무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때,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출발점에 관한 영감일 뿐이라, 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터뷰·드로잉·콜라주 등 방법을 사용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5월 1일부터 두 달간 DDP 갤러리문에서 진행한 <유머 오브 언캐니: 귀지와 코딱지> 전시가 앞으로의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시실에서의 경험, 입장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만지는 것과 사람들이 실제로 만지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작품의 내구성과 재료 연구의 방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관객, 특히 어린이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재미있고, 망가질까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는 전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공부와 연구를 통해 주제를 발전시키고 작품에 또 다른 관점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최근 사람들에게 작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언캐니’라는 단어로만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연구해 이 복잡한 감정이 혼재된 개념을 창조해 사람들이 특수한 경험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아무 개념과 생각과 연구가 필요 없는 단순히 손으로 만드는 창작 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내용이 창작물을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보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는데 한번쯤 왜 이걸 만들었냐는 물음에 ‘그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 <유머 오브 언캐니: 귀지와 코딱지> 전시 전경



# 연희문학창작촌 이세옥 대화적 관계 안에서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연희문학창작촌에 근무하고 있는 이세옥입니다. 재단에 입사하기 전에는 영상과 사운드 매체를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예술 창작의 내적인 부분 혹은 미학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예술가로서의 활동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술을 만들고 구성하는 데 작용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시선을 향하게 됐어요. 가령 서울의 예술 생태계에 공공 지원금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재단의 사업이 장르·영역별 프레임에 제한한다는 측면 같은 것들이요. 또 조직에 소속돼 고정된 멤버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라이프스타일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서울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의 저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입사 전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로 재단과 연을 맺었다고요.** 요즘 들어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매체에 오르락내리락하며 선망의 대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현실 사회는 개인에게 아티스트가 되라고 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러지 않고 있죠. 이런 전제 하에서 진지한 버전으로 제 관심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면요. 저는 예술계 종사자로 지내면서, 주로 수월성 중심으로 예술을 바라보다가 과정과 동기가 중요시되는 예술까지 아우르는 관점으로 다소 이동한 것 같아요. 물론 예술만이 줄 수 있는 감상의 즐거움을 좋아하고 여전히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곤 합니다만, 예술은 아티스트 개인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와 맥락 안에서 산출되는 사회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으로 재단에 근무하는 것과 창작자로서의 활동은 분리된 일이지만, 창작 경험에서 비롯한 이해가 있기에 예술 작품과 활동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재단에서의 경험과 이해 역시 창작 활동을 바라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부에선 신문방송학과 영문학을 전공했다고요. 예술 생태계에서의 다학제적 학문 탐구는 어떤 도움이 됐나요.** 실제로 제 학부 전공은 창작 중심의 커리큘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자체적으로 창·제작 수업을 찾아 그 시절을 채워나갔죠. 그런 성과와 기질은 계속 이어졌고, 영상예술학으로 석사 과정에 진학해 졸업 논문으로 소위 '아티스틱 리서치' (artistic research)로서 중첩, 축적 기법과 형식 중심의 이미지 구성 원리를 연구했어요. 이후에도 현대미술 기반의 다학제적 커리큘럼 안에서 후속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인류학 수업이나 공학 미디어랩에서 강의를 들으며 예술과 현실 사회에 관한 제 관점을 유연하게 만들어가는 훈련도 했고요. 이런 학습 덕분에 서로 연결된 영역에 대한 감각과 이해가 더 강화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유연함과 관용도 생기는 것 같아요.

**새롭게 웃을 갈아입은 웹진 [비유] 발행을 맡고 있어요.** 올해 [비유]는 지난해 말 개편을 준비하면서 설정한 방향성과 계획한 구상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한 발짝씩 조금 더 시도해보고 있어요. 독자분들의 반응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고요. 편집위원들과 전반적인 구성, 호별 기획 주제, 시리즈의 형식과 성격, 나아가 누리집의 크고 작은 디자인 요소,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까지 기획 단계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물론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인 운영과 행정 절차 역시 제 몫이고요.

**앞서 지역문화팀, 그리고 문래예술공장을 거쳐왔다고요.** 재단에서 맡은 업무는 대부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사업이라 하나하나 전부 기억에 남아요. 돌이켜보니 특히 기존 사업의 개편이나 과거의 사업을 재도입하는 순간에 때마침 제가 투입된 경우가 많았더군요. 문래예술공장에서 사운드아트 분야 특화 사업을 운영할 때는 예전 사업을 소환해 '사운드 온'이라고 직접 고안한 사업명을 붙였고, 홍보 채널로 활용되던 '로컬 투 서울' 누리집을 서울 지역문화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했고요.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 '생활문화 25'를 포함하는 'N개의 서울'을 준비하기도 했네요.

**우리 삶에 예술이 좀 더 깊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잖아요. '예술을 참조하는 삶, 삶을 참조하는 예술' 같은 시선으로 삶과 예술을 바라보고, 이런 인식을 협력 주체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함께 예술 작품에서부터 예술 생태계까지 만들어간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문화예술행정가로서 지키려는 신념이 있나요.**

직원으로서 제가 재단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연구자·기획자들과 함께 그들의 작품과 활동을 만들어가는 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아가 신scene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유동적인 예술 신scene의 영역과 경향에 동참한다는 전제를 두고 직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합니다.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어렵듯하게 정서를 감각하거나 상황을 이해하지만 적확하게 발화하기 어려울 때,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주제의 책을 찾아 읽어요. 단어와 문장이 머릿속 이미지를 개념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러 단상을 이어주는 기분이 산뜻하거든요. 한편 왠지 모르게 경직되거나 피로한 날에는 함께, 또 홀로 움직일 수 있는 요가 클래스에 가요. 잘 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순간을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반짝이는 순간을 마주하죠.

**스무살 서울문화재단에 축하 인사를 건네주세요.** 스무 해 동안 재단 내외부에서 프로젝트에 협력하신 분들과 개별 프로그램에 찾아와주신 모든 발걸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장의 화려한 결과물에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 과정과 그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또 다른 스무 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 연극으로 아시아 한바퀴 서울연극센터 '아시아 플레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연출가들과 함께 이번 무대를 마련했다. 서울연극센터가 이번에 처음 시작한 '아시아 플레이'는 청년예술가 8개 팀이 일본·태국·베트남·중국 등 아시아 권역의 작품을 매주 국가별 2편씩 낭독공연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어졌다.

## 일본, 블랙코미디의 순간

6월 6일, 일본 희곡으로 '아시아 플레이' 여정의 첫 출발을 알렸다. 100여 명 관객이 1층 라운지를 가득 채운 가운데 시작된 첫 번째 작품은 일본 근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아리시마 타케오 有島武郎의 '도모타의 죽음'. 아틀리에에 모인 가난한 화가 다섯 명이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전략을 세운다.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모델이 고른 한 사람을 요절한 천재 화가로 만들고, 그 그림을 그림상에 비싸게 팔기로 한다. 조민영 연출과 여섯 배우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낼수록 객석에서도 웃음소리가 커졌다. 모델이 칭찬인 듯 아닌 듯 요절한 화가 역할을 하게 될 한 사람을 고를 때는 관객도 함께 죽음이 누구의 것이 될지 점쳐보게 됐다.

다음으로 이어진 작품은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연기가 돋보인 '컨트롤 오피서'. 현대 일본연극의 대표 주자로 소개되는 극작가이자 연출가 히라타 오리자 平田オリザ의 단편 희곡으로, 올림픽 수영 출전권을 다투는 시합이 끝난 후 선수들의 대기 장소를 그렸다. 도핑 테스트를 앞둔 선수들과 도핑 검사원(컨트롤 오피서 control officer)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이름을 선수 이름으로 사용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은유를 그리는 이 희곡은 선수와 검사원 역할을 나눠 가진 배우들과 연출가 오세혁이 블랙코미디로 풀어낸 객석의 분위기를 흔들었다.

## 태국, 아름답고 슬픈 청춘의 면면

조금 더 더워진 2주 차 6월 13일에는, 한국의 날씨가 태국 날씨와 비슷할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로 관객을 맞이했다. 첫 주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1층 라운지의 주황빛 소파를 활용해 무대를 꾸몄다. '사랑'을 주제로 한 연작을 집필하고 있는 태국의 극작가 슛카능 분나랏차디 Sudkanueng Buranarachada의 희곡

이렇게 뜨거웠던 지난 6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서울연극센터 1층 라운지는 새로운 희곡을 읽는 청년예술가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아시아 희곡 낭독공연 '아시아 플레이 Asia Play'가 아시아 4개국의 희곡을 경유해 한국의 연극 창작 현장으로 연착륙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순간이었다.

'아시아 플레이'는 연극 장르 청년예술가 모임 청년예술가네트워크가 올해 서울연극센터에서 진행한 워크숍 '프로젝트 3일'을 계기로 시작됐다. 만 39세 이하 연극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3일'은 신진 배우 100여 명이 6명의 연출가를 만나 연습과 토론 등을 거쳐 공연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서울연극센터는 프로젝트가

‘=3/4’가 더운 날씨와는 상반되는 풋풋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1=1’이라는 수학 공식이 사랑의 수식에서는 빈자리로 완성되지 않기도 한다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연인들의 엇갈린 사랑의 방정식을 다뤘다. 연출가 원지영과 배우들 덕에 태국 청년들의 연애 고민에 잠시나마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객석이 청춘의 사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강해지고, 태국의 사랑노래가 배경으로 흘렀다.

이어진 작품 ‘아무데도 없는 곳(Nowhere Place)’은 이런 분위기를 단순히 무겁게 전환했다. 태국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은 연극을 만드는 태국의 ‘국민 예술가’ 프라딧 프라사통(Pradit Prasartthong)이 태국 탐마삿 학살 40주기를 맞아 쓴 고발성 희극이다.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신랑과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신부의 이야기가 교차해 1976년 10월 방콕 탐마삿 대학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 관객들을 이끌어간다. 중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대학을 에워싸고, 교정에 난입해 시위대를 무작위로 때리고 죽이고 고문하는 것을 고발하는 장면에 이르러 객석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떠올리며 국가에 의한 학살을 다시 기억하게 됐다. 연출가 강훈구와 네 명의 배우,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전광판을 통해 영사된 사건의

기록사진이 관객을 한국과 태국,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 사회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안내했다.

**베트남, 현실보다 리얼한 인간 군상**

6월 20일, ‘베트남 단편 소설의 왕’이라는 별칭을 가진 베트남의 희곡 작가 응우옌후이티엵(Nguyen Huy Thiep)의 희곡을 연달아 두 편 만났다. 응우옌후이티엵은 서른여섯의 나이에 첫 단편을 발표하고, 이듬해 ‘퇴역 장군’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으며 이른바 ‘응우옌후이티엵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다. 3주 차는 응우옌후이티엵의 ‘왕은 없다’로 문을 열었다. 베트남 개혁·개방 시대를 거치며 흔들리는 사회 구조를 응우옌시 가족의 일상을 통해 매끈하게 보여준다. 응우옌시 가문의 장남 꺾과 결혼한 싱에게는 시아버지인 끼엔 영감과 네 명의 시동생이 생겨버렸다. 특하면 욕을 하는 시아버지, 대놓고 이성적으로 들이대는 첫째 시동생, 집안일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막내 시동생까지 가지각색 인물들이 막무가내로 드나든다. 시아버지가 노환으로 죽고 딸을 낳을 때까지 이어지는 시집살이를 희극적으로 묘사하면서 베트남의 전통적 가족 개념이 붕괴하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연출가 김남언과 배우들이 그려내는 생생한 묘사와



연기에 객석에서는 ‘어, 저거 진심 아냐?’ 하는 웃음마저 터져 나왔다. 두 번째 작품 ‘강 건너기’는 관객들을 강가로 데려다 놓았다. 나뭇배로 설정된 무대 위에는 더 다양한 인물이 등장했다. 스님, 시인, 교사, 도둑, 골동품 장수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루터에

도착한 배에 하나둘 올라타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제 한배에 올라타게 된 인물들은 도자기 병 하나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인간의 이중성과 복잡한 내면을 폭로한다. 연출가 연지아와 함께한 배우들은 인물의 내밀한 표현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작가의 의도를 탁월하게 구성해냈다.

**중국, 젊은 예술가의 현주소**  
아직 초여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뜨거운 날씨, 6월 27일 일본과 태국·베트남을 거쳐 중국 희곡으로 ‘아시아 플레이’의 마지막 문을 열었다. 4주 차의 첫 낭독공연은 상하이희극학원 연출과를 졸업하고 연출과 작가·배우로 다재다능하게 활동하고 있는 리진웨이(李進偉)의 작품 ‘회장님의 일생’. 궁핍함에 물려 해체 지경까지 내몰린 극단 ‘X화’가 해체를 결심한 날, 갑자기 한 억만장자가 연습실을 방문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다. 억만장자는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의 순간을 진실하게 연출해 준다면 고액의 사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듣고 있던 이들이 한바탕 이수라장을 연출한다. 연출가 이준우와 세 배우가 마치 현상금을 따내기 위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감칠맛나게 풀어냈다.

이어지는 마지막 공연은 ‘당신의 발톱’.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들며 활약하는 중국 차세대 배우이자 작가·작곡가인 장웨이룬(張韋倫)의 작품이다. 일생을 완벽, 정확, 엄격, 규율 속에 살아온 주인공이 ‘얼굴’에 열등감을 느끼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자는 급기야 성형외과 의사가 돼 인생의 모든 단계를 성형하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든 같은 길을 가게 되지 않는다. 연출가 정철과 배우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하게 되는 ‘인생의 갈림길’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

객석으로 전달했다. 특히 ‘당신의 발톱’은 작가가 ‘아시아 플레이’를 위해 쓴 신작으로, 작기도 직접 서울연극센터를 찾아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창작진과 관객을 만났다. 4주간 8개 팀의 낭독공연을 거치며 연출가와 배우들은 저마다 아시아 희곡을 통해 무대에서 대본의 확장성과 아시아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애썼다. 가깝지만 멀고, 멀지만 가까운 아시아 국가의 희곡을 펼쳐놓고 읽으며 자본주의의 청병이자 식민 통치와 냉전으로 얼룩진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아시아의 현재를 두루 돌아보는 짧은 연극 여행이 됐다.

서울연극센터는 2014년부터 웹진 [연극in]에 게재되는 ‘10분 희곡’을 낭독공연으로 발전시켜 ‘10분희곡페스티벌’이나 ‘희곡제’로 무대화하는 등 창작 희곡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힘써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진 극작가를 발굴하고 젊은 창작자의 네트워킹 플랫폼 역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운영한 10분희곡페스티벌의 뒤를 잇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서울연극센터는 이번 ‘아시아 플레이’를 통해 연극 장르 진입 단계 청년예술가를 뜻하는 ‘첫 배우’가 국내 미발표된 텍스트인 ‘첫 희곡’을 만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아시아 플레이’를 경유해 희곡과 연극의 새로운 목소리를 만나기 위한 여행을 계속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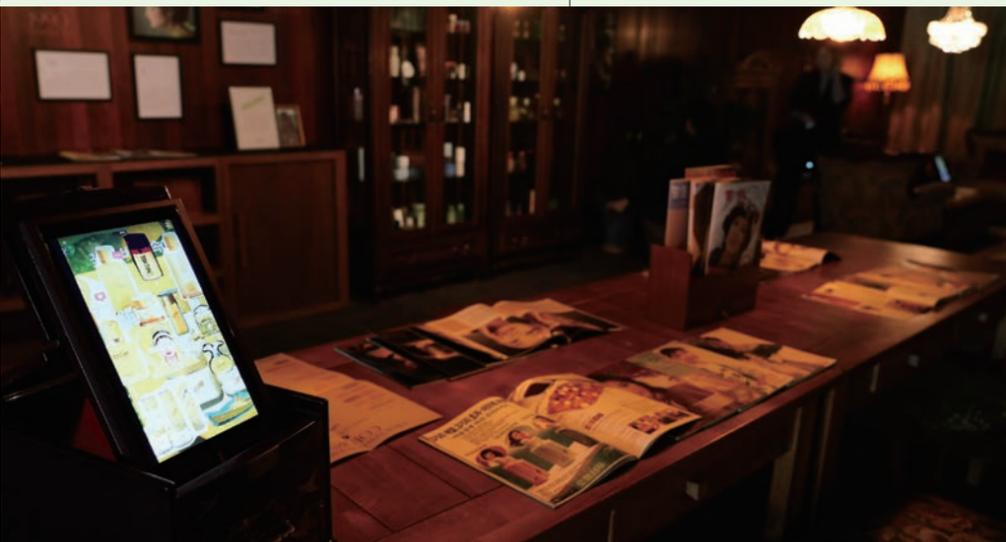
# 문화로 확장하고 연결되는 노들컬처 클러스터

서울 노을 맛집, 따릉이 타고 나들이 가기 좋은 코스, 서울에서 감상 사진 찍기 좋은 곳, 한강 불꽃놀이 숨은 명당, 서울 새해 일출 명소, K-팝 성지 순례 코스(K-팝 팬들이 3대 대형 연예기획사인 YG·SM·HIVE의 사육을 방문하는 곳)와의 인접성... 이 모든 타이틀에 딱 맞는 장소가 있다. 바로 '노들섬'이다. 자연과 감성, 문화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데다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한 노들섬은 공연장(라이브하우스)과 전시장(노들갤러리), 북카페(노들서가), 상업 공간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한강의 자연까지도 모두 즐길 수 있어 이미 MZ세대와 해외 여행자들 사이에선 '서울 여행 중 반드시 가봐야 하는',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는', '아는 사람은 아는'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성지로 알려져 있다. 입소문을 타고 매월 노들섬을 찾는 방문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월부터 4월까지 노들섬

방문객은 34만6천 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방문객 수(16만1천명)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의 축제 통합 브랜드인 '아트페스티벌\_서울'의 첫 행사인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 진행된 5월 4일과 5일에는 일일 방문객이 3만 명에 육박하며, 노들섬 개관 이래 최대 일일 방문객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노들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들섬 방문객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노들섬 인근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노들컬처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노들컬처 클러스터는 노들섬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기관 및 기업의 협업 네트워크다.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확장해나가는 일명 '노들섬 확장팩'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노들컬처 클러스터의 1호 협력 기관으로 아모레퍼시픽재단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이 함께하게 됐다. 이들 기업은 5월 23일 서울문화재단과 3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모레퍼시픽재단은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뷰티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 고故 서성환 선대 회장의 뜻에 따라 1973년 설립된 재단으로, '여성과 문화', '아시아의 미',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1982년 태평양 복지회로 시작해, 청년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경영을 통해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두 재단의 가치관이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라는 서울문화재단의 미션과 합치해 업무협약 체결로 이어진 것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5월 10일에는 아모레퍼시픽그룹에서 모집한 직원과 자원봉사자 19명이 아트가드닝 '노들섬, 꽃 피우다'에 참여해 노들섬 내에 꽃밭을 조성했다. 5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노들라운지 내 1980년대 가정집을 재현한 공간을 조성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K-뷰티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유행화장》을 진행하며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오는 연말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다. 6월 21일부터 한 달간 아티스트 그룹 '녹음'과 가드닝 스튜디오 '수무'가 협력해 마련한 전시《물의 자리, 돌 풀바람》이 열리고, 이어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 뉴미디어아트 작가 '천체'와 협력한



《청년 마음 전시》가 진행된다. 8월 9일에는 노들섬 K-컬처 주간과 연계해 가수 스타라장이 함께하는 <청년 마음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 이후 노들섬을 크리스마스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크리스마스 공병트리'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프로젝트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노들컬처 클러스터는 노들섬을 방문하는 국내, 나아가 늘어나는 해외 방문객까지 겨냥한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노들섬 인근의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감에 상호 콘텐츠를 공유하고 그 시너지를 배가하는 문화 벨트로 성장해나갈 예정이다.

노들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는 노들섬 누리집(nodeul.org)과 공식 인스타그램(@nodeul\_island)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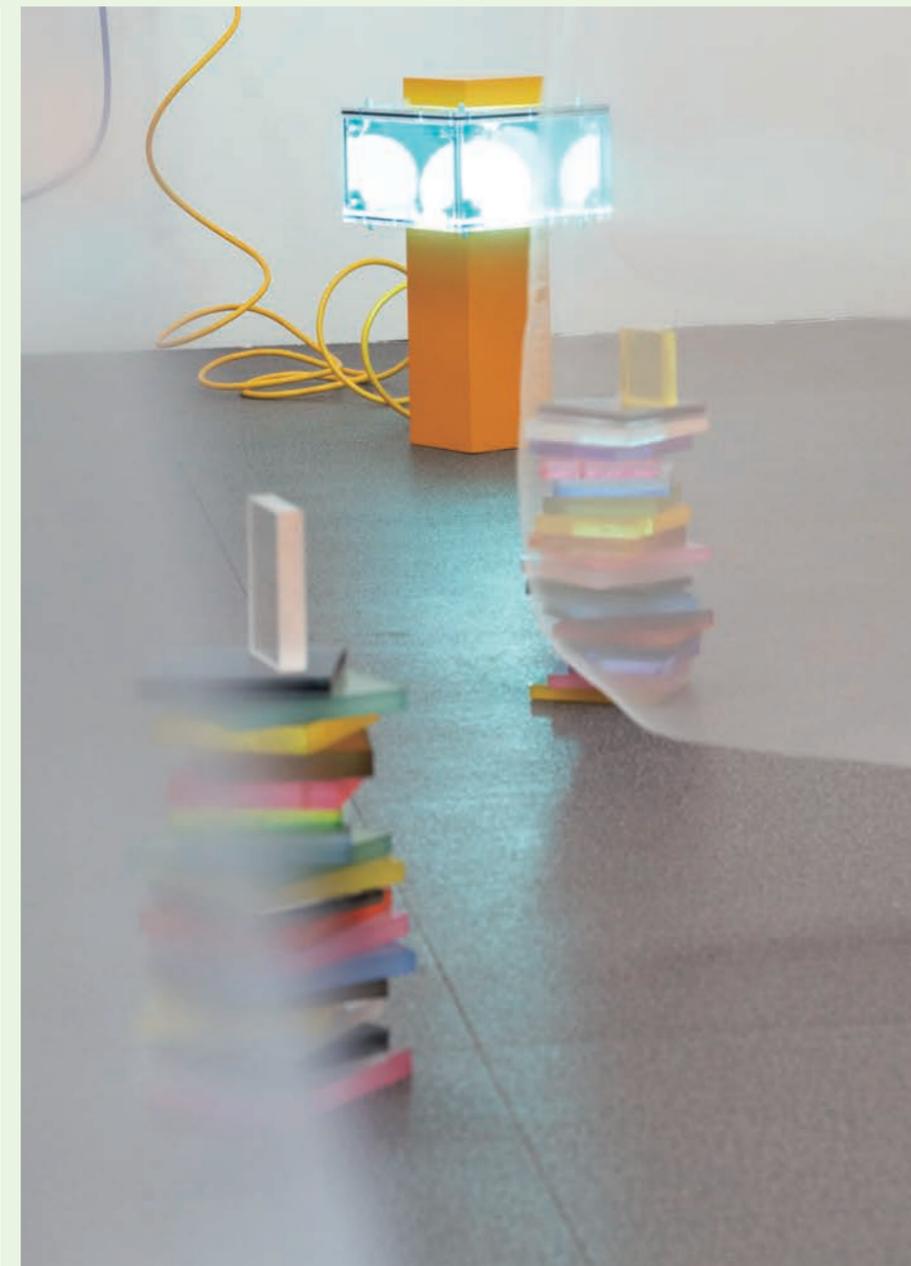
# 지하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협력 신당 프로젝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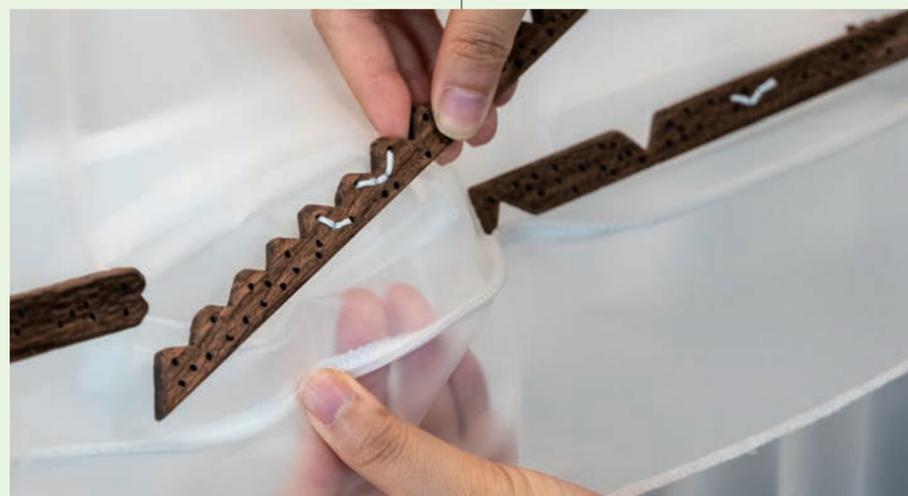
“협력하고 싶습니다!” 서울중앙시장 지하에 위치한 공예 창작공간인 신당창작아케이드에 입주하는 작가들의 지원 동기와 포부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협력’에 대한 이야기이다. 35명이라는 적지 않은 예술인이 입주한 시장 지하상가의 환경은 굉장히 밀착돼 있고 질서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그 불편함은 서로의 교류를 촉진하고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창작의 영감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작업을 기대하는 예술인의 열망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조심스레 이 미스터리한

레지던시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신당 프로젝트 전시[Sindang Project Exhibition, SPE]’는 신당창작아케이드에 입주하기만 하면 대단한 컬래버레이션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에 구체성을 부여한다. SPE는 현직 입주작가 2인 이상이 협력해 하나의 전시를 개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단순히 작품을 나열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제에 관한 공동 작품의 창작과 공간 기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같은 입주작가라 해도 각자의 예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탐색을 통해 팀을 구성하고,

만나서 기획안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공간에 구현하는 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크고 작은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두 작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작은 전시실을 채운 협력의 결과물은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참신하고 숨 막히게 아름답다.

- 2024년 첫 전시 <소망을 위한 움직임>
- ↳ 작가워크숍 현장
- ↓ 2023년 열린 <The intersection A ∩ B> 전경





← 6월 30일까지 신당창작아카데미에서 열린 두 번째 신당 프로젝트 전시 <주름이 바란 당신> 전경

**작가의, 작가에 의한, 작가를 위한**

올해 신당 프로젝트 전시는 특히 작가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했다. 외부에 의한 심의와 자문 과정을 없애고 행정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작가들에게 선정의 주도권을 부여한 것이다. 총 13개 팀이 지원했고, 전시 기획안 발표 워크숍을 진행한 이후 상호 평가에 의해 8개 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가들은 '공예의 움직임'을 주제로, 예술과 예술인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난 두 달간 두 팀이 차례로 전시를 마쳤고, 이달 세 번째 전시가 진행된다. 첫 번째 전시인 김수진·문채민 작가의 <소망을 위한 움직임>에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공예를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해 전통적인 공예가 가진 지원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두 번째 전시인 촉각예술팀 촉(이혜린·최세윤)과 이시원 작가의 <주름이 바란 당신>에서는 옷을 입은 신체가 움직일 때 주름이 생긴다는 지점에 주목해 주름을 통한 인간의 욕망과 관계, 그리고 일상의 단상을 표현했다.

이달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세 번째 전시

황은담·정다솜 작가의 <Dive in Innocence>는 작가들이 어릴 적 종이 위에 마음껏 상상과 꿈을 펼치던 순수한 모습을 달라진 현재 모습에 투영한다. 성장하면서 마주하는 현실,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일상이 된 모습을 유쾌하게 비틀면서 예술가의 '나를 찾는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한다.

신당 프로젝트 전시는 작가의 기존 작업과 전시 작업을 함께 비교하면서 본다면 좀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보통 어떤 작가가 신작을 선보일 때 기존 작업의 느낌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타작가와 공동 창작이 필요한 이 전시에서만은 기존 작에서 완전히 벗어난 작업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 프로젝트팀만 바뀌며 릴레이로 진행되는 전시 특성상, 다른 팀이 이 주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핀다면 더욱 흥미롭다. 모든 전시를 관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을 통해 리뷰를 찾아보고 감상한다면 더욱 풍부한 감상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도 또 한 층 내려와야 하는 지하상가에 위치한 탓에, 필연적으로 대중에게 노출이 적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당 입주예술인들은 이곳에서 전시를 열고 싶다고 말한다. 작은 공간을 온전히 자신의 작업으로 채우는 경험은 더 큰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되고, 다른 작가와 협력은 본인이 설정한 경계를 뛰어넘어보는 새로운 시도가 되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는 동료로부터의 응원은 마음속 두고두고 꺼내볼 힘이 된다. 올해 지원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작가가 신당 프로젝트 전시 기획안을 제출한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이곳에 자리잡은 이유와도 같을 것이다.

때로는 물밑에서 일어나는 작가들의 실험적 움직임이 외부 갤러리나 기업의 러브콜 등 더 큰 무대로의 진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까지 별마당도서관을 비롯해 호텔, 공공 청사 등 외부 공간에서 추가로 전시를 선보였고, 중구청으로부터 3회의 추가 지원을 받기도 했다. 과거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서울공예박물관과 협업해 더 많은 시민에게 신당의 작업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9월부터 12월까지 총 세 편의



SPE 전시가 <공예의 움직임@쇼윈도>라는 제목으로 서울공예박물관 쇼윈도 갤러리에서 한번 더 전시된다. 치밀한 검증과 수집의 공간인 박물관에서, 가장 동시대적이고 실험적인 신당 프로젝트 전시를 선보이는 광경이 과연 어떠한지, 오가는 시민과 국내외의 관광객들의 시선은 어떻게 다를지 벌써 기대를 모은다.

**신당 프로젝트 전시 연간 일정**

- ① 김수진·문채민 <소망을 위한 움직임>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 ② 이혜린·이시원·최세윤 <주름이 바란 당신>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 ③ 황은담·정다솜 <Dive in Innocence> 7월 5일부터 21일까지
- ④ 윤경현·조예린 <LIVILD>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 ⑤ 김연진·쿠니 <OOPArts in Alice>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 ⑥ 소혜정·정선경 <별의 수집> 9월 13일부터 29일까지
- ⑦ 임우택·안은선 <Inefficient body>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 ⑧ 이시평·강인규 <통과의례> 11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예의 움직임@쇼윈도>**

9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공예박물관 전시3동 쇼윈도 갤러리  
\*10월 14일부터 17일,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설치로 인해 휴실

# 바캉스보다 뜨겁게 올림픽 앞둔 프랑스 문화계

7월 26일, 프랑스가 그토록 고대하던 파리 올림픽이 열린다. 현지는 현대 올림픽을 창시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의 나라라는 자부심에, 또 100년 만에 열리는 하계 올림픽이라는 역사적인 숫자에 전역이 들떠 있다. 대형 마트나 브랜드의 행사에 하루가 멀다고 올림픽 입장권이 경품으로 등장하고, TV와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명품부터 기저귀 회사까지 앞다퉈 올림픽을 주제로 한 광고를 송출한다. 일상이 온통 올림픽으로 둘러싸인 셈이다.

문화계도 그렇다. 올 4월부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프랑스 곳곳에서 무려 2천 개 넘는 올림픽 관련 행사가 열린다. 문화 올림픽Cultural Olympiad (1912년 올림픽 기간에 시작된 예술 경연대회로, 1992년 경쟁을 폐지하며 문화 축제로 바뀌었다)의 일환이다. 연극·무용·음악·서커스·조형예술·사진·디지털·문학·공예·영화·합창... 마치 프랑스가 문화 강국임을 뽐내기라도 하듯, 어찌 보면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올림픽 이야기뿐이지만, 단시간에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즐길 문화 행사가 쏟아지는 것 또한 색다른 경험이다. 스포츠 정신이나 세계의 화합이라는 거국적인 의미가 아니라라도 이를 인문이나 음악·예술적인 시각에서 올림픽을 바라보고 재해석할 흥미로운 기회니까. 게다가 행사의 82%는 무료로 진행된다.

## 올림픽을 두고 일어난 갈등

처음부터 체육계와 문화계의 공생이 순조롭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척점에 가까웠다. 2022년 10월, 파리 올림픽에 대비한 안보 상황 청문회에서 내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냥Gérald Darmanin이 치안 병력 확보를 위해 프랑스 전국의 여름 축제를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시 프랑스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대규모 위조 티켓 소지자가 난입해 난동을 벌이고, 갱단의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상태라 보안 문제에 극히



민감했다. 취소로 타격을 입을 축제는 2,600여 개에 달했다. 무책임한 장관의 발언은 강한 반발로 인해 이후 번복됐다.

여름 축제 취소카드까지 꺼내든 과거의 논란이 무색하게도 1년 반 뒤, 파리 시는 파리 곳곳에서 '역사상 가장 큰 파티'를 열 것이라 약속한다. 최초로 경기장 밖에서 열리는 센강변의 개막식부터, 시청 앞 광장을 올림픽 테라스로 꾸미고 시내 26개 장소에서 축제를 개최한다. 또 주 경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Stade de France 옆 400헥타르 규모의 조지 발봉 공원Parc Georges Valbon을 올림픽 공원Parc des Jeux로 명명하고, 최대 1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무료 콘서트를 다수 열 예정이다. 테러나 안보의 위협이 없길 바랄 뿐이다.

## 새로운 얼굴, 브레이킹의 영향력

이번 올림픽에서는 브레이킹Breaking(브레이크 댄스)이 공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를 기념하며 공공장소에서 많은 무료 댄스 강습이 열리는 중이다. 공연예술과 가장 밀접할지도 모르는 이 '무용' 종목에, 특히 오페라극장들도 흥미를 느낀 듯하다. 샹젤리제 극장Théâtre des Champs-



↑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선수 출범식 ©CNOSF/KMSP  
← 지휘자의 '자전거 오케스트라 투어' ©Jean-Didier Tiberghien  
↳ 파리 오페라 발레 <아파치> ©David Le Borgne/OnP

Elysées은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비발디 <올림피아드'Olimpiade>를 상연하는데, 주역 카운터테너 오를린스키Jakub Józef Orliński는 노래 외에도 '브레이킹' 실력을 선보인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를 다룬 이 작품에서 그는 선수 역할이다.

니스 오페라Opéra Nice Côte d'Azur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브레이킹을 젊은 세대와 오페라를 잇는 매개로 점찍은 바 있다. 그동안 클래식 발레와 브레이킹의 배틀 <힙합페라Hip Hop'Éra>를 꾸준히 개최해왔는데, 이 배틀 형태는 지난 5월 열린 오페라 <올림피아드 데 올림피아드'Olympiade des Olympiades>연출에도 삽입됐다. 무대 위에 구현한 육상 트랙도 인상적이다. 1월에는 드보르자크 <루살카>속 인어들을 여성 싱크로나이즈 선수로 설정하고 무대를 수영장으로 꾸몄다.

파리 오페라 발레는 7월 20일 현대무용과 힙합 댄스를 결합한 <아파치Apaches>를 올린다. 무용수 35명과 힙합 댄서 40명이 화합하는 장으로, 고전적인 황금빛의 가르니에 극장에서 전자음악에 맞춰 힙합·크럼프·일렉트로닉·왁틴 등 안무가 무대에 오르는 장면 또한 '브레이킹'할 것이다.

이외에도 파리 오페라 발레 전임 예술감독 뱅자맹 밀피에Benjamin Millepied는 6월 8일 '춤추는 도시'La Ville Dansée'를 진행했다. '모두에게 문화를 개방한다'는 목표 아래, 파리 필하모니를 비롯한

파리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다양성을 존중한 창작 안무 10편을 선보였다. 무려 10시간 이상 진행된 이 공연에는 1만 5천 명 넘는 관중이 몰렸다.

## 실제 스포츠를 접목한 공연들

7월 오페라 바스티유에 오르는 작곡가 데이비드 랭David Lang의 오페라 <클라우드 아웃Crowd Out>은 영국 축구팀 아스날 서포터즈들의 응원 모습, 그의 말을 빌리면 "팬들이 포효하는 힘"에서 영감받았다. 무대에는 스타디움의 열기를 구현하기 위한 1천 명의 아마추어 합창단이 등장해 장관을 이룰 예정이다.

가장 재미난 이벤트는 '자전거 오케스트라 투어Tour d'orchestre(s) à bicyclette'다. 지휘자가 시민들과 자전거를 타고 한 도시에서 다음 공연 도시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공연 투어가 끝나면 프랑스 일주가 이뤄지는 방식. 사이클링에 열성인 프랑스다운 발상이다. 일례로 6월 10일 자전거 이동을 마치고 몽펠리에의 코메디 광장에 입성한 지휘자 딜랑 코르레Dylan Corlay의 지휘 아래, 오륜기 색상으로 맞춰 입은 400명 어린이가 베토벤 '환희의 송가'를 불렀다. 영당이 패드가 들어간 바이커 쇼츠를 입은 지휘자의 뒷모습은 전무후무할 것만 같다. 이외에도 통통 튀는 행사가 한가득이나 지면의 한계로 다 담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다.

파리와 수도권 시민의 3분의 2가 올림픽 기간에 바캉스를 떠나지 않을 예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인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여름 바캉스보다도 올림픽의 열기가 뜨겁다는 뜻이다.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수천 가지 문화 행사에 행복한 비명을 지를 테다. 부디 안전하고 신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 2024 서울거리예술축제

## 자원활동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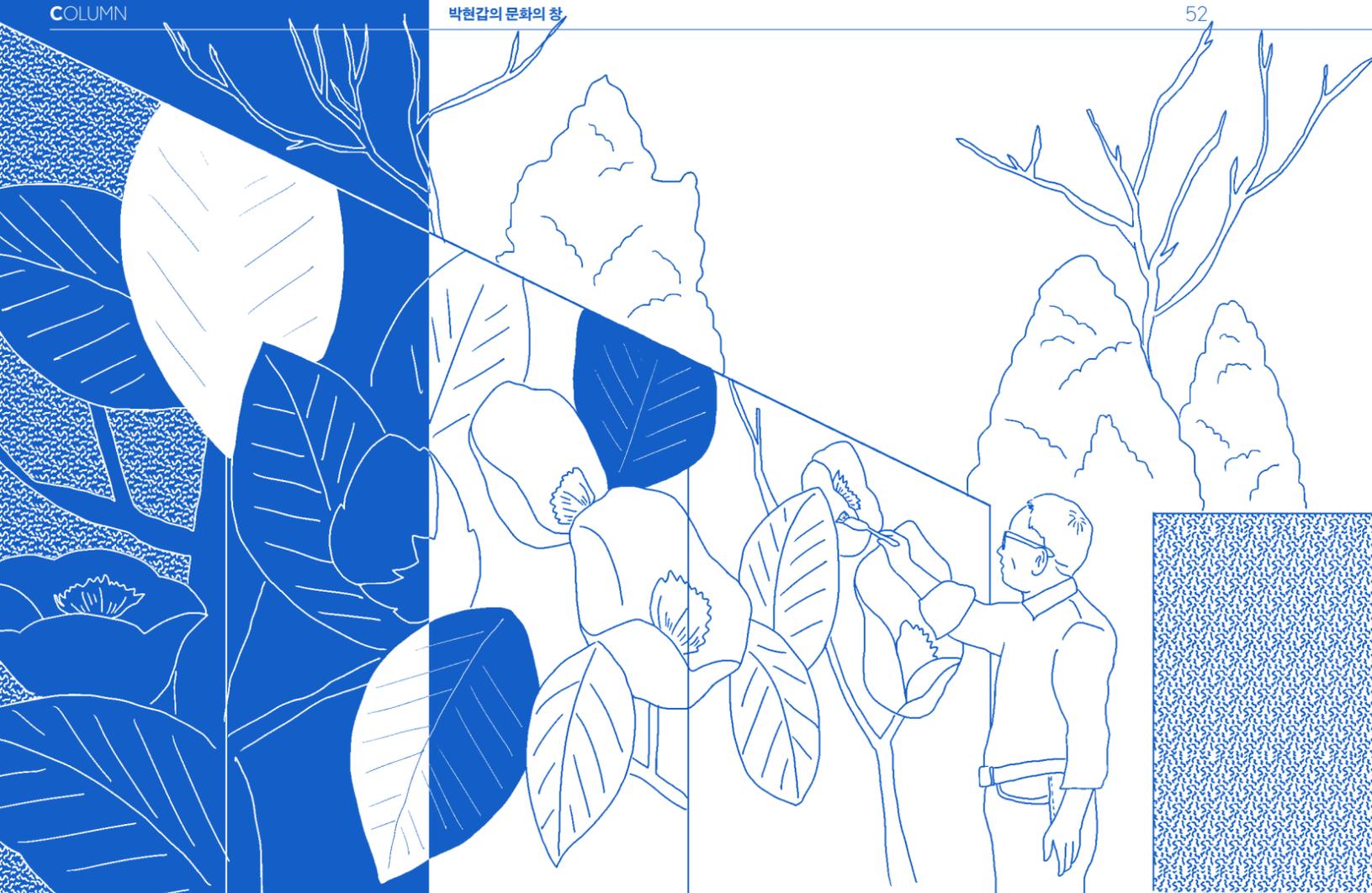
- 모집분야** 현장운영(공연&프로그램, 외국어지원)  
홍보&아카이빙
- 활동기간** 8월~9월 \*축제기간 9월 16일(월)~18일(수)
- 신청기간** 2024년 7월 10일(수) ~ 8월 4일(일) 자정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하기

COULD MEAN

박현갑의 문화의 창  
 동백화가강종열의 동백나무숲  
 걷다가 마주친 춤  
 소유할 수 없는 경험, 소유하는 경험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줍는다  
 빛에서 별으로 향하는 계절에—별뿔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시조, 그 시절의 풍류  
 일상 결의 공예  
 자수와 장신구에 새긴 이야기



## 동백 화가 강종열의 동백나무 숲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꽃은 절기와 관계없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 개나리·진달래·벚꽃·목련 등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알리는 꽃은 겨우내 움츠린 사람의 마음에 활기를 돋게 한다. 많지는 않지만 겨울에 피는 꽃들도 있다. 동백꽃·매화·복수초

등이다. 절기상 겨울꽃은 봄꽃과 달리 강인함과 희망, 절개의 상징으로 다가온다.

동백꽃은 이름에서 드러나듯 겨울에 피는 꽃이다. 한겨울 추위와 눈보라를 견뎌내고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해 1월부터 4월까지 꽃망울을 터뜨린다. 벌들이 꿀을 빨면서 수분受粉하는 봄꽃과 달리 동백은 겨울에도 활동하는 동박새의 도움으로 수분한다. 동백꽃은 부산 동백섬·여수 오동도 등 중부 이남의 해안 지역에서 많이 자생한다. 내륙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숲이 인기 있다.

6월 초 서울 세종대학교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동백꽃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찾았다. 여름을 앞둔 계절에 겨울꽃을 소재로 한 전시회라니, 어떤 작가의 작품일까 하는 궁금증이 절로 일었다. 전남 여수에서 동백을 화폭에 담는 강종열(1951년생) 화백의 기획 초대전이였다.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지하2층 전시실은 마치 '원시림'에 들어선 듯 동백나무로 가득했다.

동백 시리즈는 동백꽃을 세밀하게 그린 작품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동백나무 숲이 원시림처럼 캔버스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두꺼운 붓질로 표현한 수십 개의 붉은 꽃잎과 나무 형체 외에는 짙은 청록색 물감으로 뒤덮여 작가의 눈에 들어온 오브제를 단순하게 묘사하는 인상주의 화풍이 느껴진다.

미술평론가인 박영택 경기대학교 교수는 그의 작품에 대해 주로 동백나무 숲을 그리는데, 보이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평가한다. 60여 점의 동백 작품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입체적인 감상도 가능하다.

이밖에 '모든 예술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선의 미학을 주제로 한 스케치 작품도 있었다. 작가가 동티모르에 체류하며 그린 자유, 평화의 소중함을 담은 작품도 있다.

갤러리 입구에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 명의의 기증 증서도 눈길을 끈다. 작가가 2014년 6월 바티칸 성당 인근 화랑에서 개인전을 하면서 30호짜리 <탄생>이라는 그림을 교황청에

기증했는데 교황이 마음에 들어 했고, 2016년 2월에 작가에게 감사하다며 이 증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탄생은 폴밭에서 흑인 어머니가 새·나비·토끼 등의 축복 속에 백색 피부의 갓난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교황이 강조하는 전쟁과 인종 차별 없는 세상, 평등 사회를 그린 작품이다. 바티칸 교황청에 한국 작가의 작품이 들어간 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다.

작가가 여수에서 그림을 그릴 때 화실 옆집에 살던 조 씨 영감 부부의 일상을 담은 작품 7점도 눈길을 끈다. 강 작가는 "자식을 대신해 손자를 키워야 하는 불행한 가정사 때문인지 늘 화가 많던 조 영감의 모습에서 1980년대 고단한 어촌의 삶은 물론 당시 고속 성장 속에서도 힘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자 했다"고 말한다.

교황이 여수인 그에게 동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오브제다. 1996년부터 가꾼 화실이 있는 돌산읍의 동백 정원에는 동백나무가 가득하다. 그는 틈만 나면 동백나무를 돌본다. 하지만 그는 동백꽃 자체보다 동백에 담긴 정신에 더 심취해 있다. 꽃 자체로도 좋지만, 서민의 아픔, 고통 등 한국적 정서와 맥이 닿은 동백꽃의 의미를 화폭에 담으려 한다.

붉은 동백꽃의 꽃말은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이다. '절조'라는 의미도 있다. 이 꽃말은 여수 오동도에 살던 젊은 부부의 안타까운 사랑을 담은 설화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어부인 남편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간 사이 섬으로 낚선 남자가 들어와 부인을 해치려 했고, 부인은 남편이 있는 바닷가를 향해 도망치다 절벽에서

떨어지며 숨졌다. 뒤늦게 이를 안 남편은 섬에 부인을 묻고 부인을 잃은 섬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섬을 떠난다. 하지만 떠나보낸 부인이 너무 보고 싶어 섬에 돌아왔다가 부인 무덤가에 붉은 꽃을 피운 나무를 보게 된다. 마치 그 꽃이 자신에게 '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는 듯했다고 한다.

작가는 여수미술협회장과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을 역임했고,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전시회를 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광주시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바티칸 성당·동티모르 대통령궁·필리핀 대통령궁 등 국내외의 많은 기관이 소장하고 있다.

그의 동백나무 숲은 원시림을 보는 듯 전체적으로 묵직한 느낌을 자아낸다. 짙은 음영으로 처리된 숲에서 작지만 붉은색의 동백꽃은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가 주목한 동백은 아름다워 감상하려는 꽃이라기보다 '아픔과 연민의 동백'이자 이를 극복하려는 동백으로 느껴진다.

그는 동백꽃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겨울을 참고 견디는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동백을 동경하며 예술가로서의 인생을 담금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작품들을 보면서 동백꽃 같은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생명력 강한 '붉은 동백꽃'을 마음속으로나마 키우고 싶다.

## 소유할 수 없는 경험, 소유하는 경험

정욱희 무용평론가

저의 부엌 찬장에 머그잔이 가득합니다. '식기'로 구매했다기보다는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구매했거나 선물 받은 것들입니다. 하와이의 강렬한 색감을 담은 머그, 양학선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기념한 머그, 특정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이 새겨진 머그, 놀이동산이나 미술관, 공연장 기념품 가게에서 사온 머그, 새로 생긴 카페에서 받은 머그 등등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머그잔을 수집하는 게 아니거니와 물건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의 집엔 온갖 곳에서 받거나 구매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찬장의 다른 칸엔 어디선가 받은 물병과 텀블러가 점점 불어나고 예전에 모았던 냉장고 자석도 어딘가 모여 있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또 어디선가 받은 노트와 메모지, 키링과 스마트링, 각종 펜 등이 굴러다닙니다. 현대인은 굿즈goods의 인간이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그잔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주로 소유할 수 없고 고정할 수 없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하와이의 파도와 꽃, 공중에서 1080도 회전하는 '양학선' 기술, 놀이동산 나들이의 추억과 감명 깊게 본 공연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그잔에 새겨 넣으면 매일 아침 커피를 담아 마실 수 있는 단단한 실체가 됩니다. 볼 때마다 기억이 떠오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굿즈, 그중에서도 상품화된 MDmerchandise는 공연예술의 한계를 보완해줍니다. 경험제에 해당하는 공연예술은 동일한 시공간에서 타인과 함께 향유할 뿐 고정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자 생성되는 순간에 소멸하고 맙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 방식인가요. 손에 잡히지 않는 공연예술을 간접적으로라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굿즈가 더욱 애뜻합니다.

공연단체는 앞다투어 MD를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기념품 가게를 거쳐야만 퇴장할 수 있는 놀이동산처럼 요즘의 공연계에는 MD가 필수입니다. 관객에게 소유할 수 없는 경험을 소유하게 해주고, 공연단체엔 쓸쓸한 수익원이자 자연스러운 홍보마케팅으로 이어지니 일석삼조입니다.

MD에서도 트렌드와 개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 눈에 띄는 것은 뮤지컬 <헤드윅>의 손수건입니다. 작품에는 퀴어 가수 헤드윅이 연인 토미와 처음 만나는 상황을 실제 관객 한 명을 대상으로 재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헤드윅이 토미를 향해 노래를 부른 후 손수건으로 화장을 닦아내어 이를 던집니다. 토미 역의 관객은 진한 화장이 그대로 묻어난 손수건을 마치 헤드윅의 분신처럼 소유하게 됩니다. 공연의 실제 소품이라는 점, 그리고

단 한 명의 관객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굿즈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굿즈를 가지고 싶은 다른 관객들을 위해 아예 화장이 묻은 디자인의 손수건 MD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만 원 안팎이면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굿즈의 위계가 생겨납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손수건 역시 공연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만 공연 중에 던져진 단 한 장의 손수건에 비할 데는 아닙니다.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경제학의 원리에 따라 굿즈도 한정판, 특별판, 친필 사인본 등으로 몸값을 올립니다. 또한 일입니다. 소유할 수 없는 공연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MD이지만 그중에서도 소유하기 어려운 것이 가치가 높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굿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더 특별하고 더 희소한 굿즈를 소유하기 위해 끝없이 욕망을 불태웁니다.

한편 공연예술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미술 역시 굿즈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술에선 단단한 실체를 가진 개별 작품이 원본이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진품 여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판화나 디지털 예술 등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단 하나의 작품을 단 한 명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성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가 굿즈입니다. 일반인이 고희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소유하기란 어렵지만, 기념품 가게에서는 별빛이 흐드러지게 쏟아지는 머그잔과 손수건, 우산과 달력, 양말과 노트를 마음껏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이 빛나는 밤에> 머그잔은 원본의 가치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본'마저도 여럿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자산 개념인 NFT가 활성화되면서 미술 작품의 원본을 여러 명이 쪼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벅크시의 대표작 <Love Is In The Air>2003는 작품 가격이 무려 12만 달러에 달하지만 이를 1만 개의 NFT로 나누어 하나당 약 1,500달러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마치 수많은 주주를 거느린 주식회사처럼 미술 작품의 원본 역시 칼로 자르지 않더라도 여러 명이 소유할 수 있는 성질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굿즈는 가질 수 없는 공연예술과 혼자만 가지는 미술의 보완제이자 교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소성이나 소유 지분에 따라 위계와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굿즈 역시 점차 자본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계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관객을 위해 출연진 전원이 포스터나 인형에 사인해 증명했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옵니다. 예술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굿즈는 가치를 따질 수 없이 소중한 것인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재화이기도 합니다. 애뜻한 사연이 있을수록 그 가치는 높겠지요. 때때로 공연단체는 재정적 목적을 위해 친필 사인 굿즈를 판매하고, 관객 역시 투자의 일환으로 그것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영리한 경제 행위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 자체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아쉽기도 합니다.

발레의 모더니즘을 이끈 미하일 포킨의 <장미의 정>1911은 한 소녀가 무도회에서 돌아온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흥분이 가시지 않은 소녀는 무도회를 떠올리며 서성이다 소파에 앉아 깜빡 잠에 듭니다. 무도회에서 받아들인 장미 한 송이가 소녀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지자 장미의 정령이 소녀의 꿈속에 나타나 소녀와 춤추지요. 장미의 정령이 창문 너머로 사라진 후 잠에서 깬 소녀는 장미꽃을 주워들어 무도회를, 그리고 꿈을 추억합니다. 장미꽃엔 무도회의 짜릿함이 투영되었고, 인격화된 장미는 또 한 겹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다음날이면 시들 장미도, 깜빡하는 단꿈도 무도회에서의 시간처럼 사라지고 말지만 소녀의 마음속에 무도회, 그리고 정령과의 춤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지요.



# 빛에서 별으로 향하는 계절에 —별뿔

오은 시인

겨울이 빛에 관해 이야기하는 계절이라면, 여름은 확실히 별에 관해 이야기하는 계절이다. 빛이 발하는 것이라면 별은 내리쬐는 것이다. 커다란 빛 앞에서 눈을 가리고 따가운 별 앞에서 손차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빛은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면서, 어딘가에 있기를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이다. 별은 추울 때 절실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때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사람은 빛낼 수 있지만 별을 낼 수는 없다. 안에 있는

온기를 애써 전달해도 상대가 그것을 별으로 받아들일지 모를 일이다. 썩거나 쪼지 않고 따갑다고 손사래를 칠 수도 있다. 참으로 고약한 별이다.

이럴 때면 사는 데 있어 먹는 일이 얼마나 필연적인지 온몸이 알아차리곤 한다. 우리는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다. 겁도 먹고 충격도 먹는다. 누군가는 이익이나 공금, 뇌물을 먹기도 한다. 자칫하다 한 방먹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 1등을 먹는 상황은 손에 꼽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한 골을 먹는 일은 예사다. 약속을 잊어먹으면 사방에서 날아드는 욕을 먹어야 한다. 좀 먹듯, 별레 먹듯, 버짐 먹듯 상하는 마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가만있어도 먹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산소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호흡 덕분에 우리는 여름에는 냉면을, 겨울에는 국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럴 때 식사는 꼭 덤 같다. 빛이 온기를 데려오는 것처럼, 별이 열기와 함께 오는 것처럼.

그리고 여름, 우리는 별수없이 또 더위를 먹는다. 습기를 먹는 것 또한 잊지 않는다. 먹는 일이 우리 소관 밖의 일인 것만 같다. 가만있어도 얼굴이

따갑다. 그 얼굴 위로 땀이 줄줄 흐른다. 따가운 별을 땀으로 만드는 게 여름에 사람이 과연 해야 할 일인지 자문하기도 한다. 더위를 먹을 때 공교로운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느낌이 좀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소를 먹는 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더위를 먹으면 꼭 몸에 탈이 난다는 것이다. 어지럼증과 함께 눈앞이 희뿌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거나 온몸의 기운이 단박에 빠지기도 한다. 그제야 자신이 뭔가를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날씨 앞에서 우리는 무력한 존재다.

프랑스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는 『통상 관념 사전Dictionnaire des idées reçues』2023 (책세상)에서 날씨를 이렇게 정의한다. “대화의 영원한 주제. 질병의 포괄적인 원인. 언제나 날씨에 대해 불평할 것.”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별달리 할 말이 없으면 “날이 참 좋지요?” “오늘 참 덥네요”와 같은 말을 건네는 장면이 연상된다. 날이 좋을 때는 인사말로 그치지만, 나들이나 여행을 계획했을 때 날이 흐리면 우리의 불평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더위를 먹고 추위에 떨다 우리가 종래 아프게 되는 것을 상상하면 세기를 뛰어넘은 해안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가 정의한 여름은 더 가관이다. “여름은 덥든 춥든, 건조하든 습하든, 언제나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불벌더위” “사상 초유의 장마” 같은 머리기사로 우리의 눈길을 잡아끄는 뉴스를 떠올려 보라.

날씨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사(人間事)에서 ‘사이’를 내팽개치고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바로 별이다. 별은 볼쾌지수를 높이고, 이는 시시로 갖은 짜증과 이유 없는 비난으로

연결된다. 더위 먹은 사람 앞에서는 겁먹는 자세가 아니라 선선히 욕먹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는 지금 별과 습기에 공명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관용적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어야 한다. 별에도 세기에 따라 다른 이름이 붙는다. “따갑게 내리쬐는 뜨거운 별”을 가리키는 땡별은 그럭저럭 버틸 만하다. “몹시 뜨겁게 내리쬐는 햇별”을 가리키는 불별보다 “여름날에 강하게 내리쬐는 몹시 뜨거운 별”을 뜻하는 썩약별이 더 강한 별이다. 여름날의 별은 습도와 결합해 우리를 타드는 동시에 녹아내리게 하기 때문이다.

빛이 밝기의 대명사라면, 별은 온도의 대명사다. 빛이 때때로 ‘색채’를 가리킬 때, 별은 ‘햇빛으로 생기는 따뜻하고 밝은 기운’의 자리를 꿰뚫어 지킨다. 어찌 보면 빛이 별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낮빛’과 ‘낮별’처럼 한낱한시에 태어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낮별을 받은 낮빛은 당연함과 어쩔 줄 모름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것이다. ‘햇살’은 빛과 별을 다 포함하는 단어다. 햇살은 “해에서 나오는 빛의 줄기. 또는 그 기운”을 뜻하는데, 빛의 줄기를 가리킬 때는 빛으로, 기운을 드러낼 때는 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별을 일컬어 ‘돋을별’이라고 한다. 짝이 돋을 때처럼 아직은 제 속내와 가능성을 온전히 내보이지는 않는다. 새싹을 보고 반사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귀여움인 것처럼 돋을별 앞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별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를 우리는 여우비라고 하듯, “비나 눈이 오는 날 잠깐 났다가 숨어 버리는 별”을

가리켜 ‘여우별’이라고 한다. 여우비는 여우별이든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짧은 동안 얼굴을 내비치기 때문에, 사라지고 나면 얼마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햇별이 잘 드는 곳에서 별을 쬐는 일”을 가리켜 ‘별바라기’라고 하고, “햇별을 오랫동안 받아 원래의 색깔이 바래게 되는 일”을 일컬어 ‘별바램’이라고 한다. 별을 바라면서도 별에 바라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살이다.

올여름도 온갖 이례적인 상황으로 가득할까. 땡별과 불별 사이에서 땀을 흘린다. 그을린 표정으로 얼음이 잔뜩 들어간 음료를 거침없이 들이켠다. 속이 잠시 울렁거리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제 그늘을 찾아야 한다. 이럴 때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날말이 ‘별뿔’다. 별뿔은 실로 아름다운 단어다.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작은 틈을 통하여 잠시 비치는 햇별”이고, 두 번째 뜻은 “그늘진 곳에 미치는 조그마한 햇별의 기운”이다. 작다, 잠시, 그늘지다, 조그마하다 등의 의미가 한데 모여 있는 날말인 셈이다. 쥐구멍에 별 들 날, 얼마나 근사하겠는가. 그늘에서 만나는 조그마한 햇별은 또 얼마나 사랑스럽겠는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별뿔의 세 번째 뜻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살핌이나 보호”가 바로 그것인데, 이 별뿔은 사랑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햇별이 뻗고 나뭇가지가 뻗고 칙닝쿨의 뿌리가 뻗는다. 다리를 쭉 뻗고 쉬다가 팔을 뻗어 사람의 손을 맞잡는다. 사람에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시간이다. 다름 아닌 ‘사이’가 절실한 시간이다. 별이 있어서 실로 다행이다. 이때의 별은 어떤 커다란 빛과도 맞바꿀 수 없다.



# 시조, 그시절의 풍류

김보나 칼럼니스트

남산에 자리한 국립극장 너른 문화광장에 가설무대가 세워졌다. 삼삼오오 나들이하던 이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국악관현악의 멋에 취했다. 무대 앞, 객석에 자리한 이들은 술도 한잔 기울이며 풍류를 즐겼다. 이날 공연은 옛 선조들이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음악을 즐기던 것을 국악관현악과 더불어, 이 시대의 것으로 재현한 것이다. (6월 1일과 2일 열린 국립국악관현악단 야외 음악회 <애주가>) 현대판 벽송연 혹은 장미연이라고나 할까. 이날의 공연은 술과 음악이 중심이었지만, 사실 옛 선조의 풍류에서 중심이 되는 건 바로 시였다. 그리고 그 시에 음가를 붙인 것이 바로 시조창이다.

청산리 靑山裏 벽계수 碧溪水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 一到滄海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 明月이 만공산 滿空山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그렇다면 시조는 무엇일까? 가곡 혹은 시조를 모르는 사람도 ‘청사~안~’ 하며 길게 늘어 부르는 황진이의 ‘청산리’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느려서 듣다 보면 잠이 쏟아지는 음악이라고 치부하던 그 음악이다. 하지만 옛 선조들 생각은

달랐다. 놀라지 마시라. 우리가 듣는 이 지루한 음악이 그들에게 ‘빠르다’고 이름 붙일 만한 곡이었단 사실. 가곡에는 ‘만-중-삭’이라는 표현이 있다. 쉽게 설명해, ‘느린-보통의-빠른’ 곡이라는 의미다. ‘만’과 ‘중’은 사라졌고, 지금은 ‘삭’에 속하는 빠른 음악만 남았기에, 선조들 입장에선 빠른 노래만 남은 셈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앞서 언급한 시조나 가곡 외에 가사까지, 비슷해 보이는 노래들이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음악 장르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셋을 통틀어 아정하고 정대한 노래라는 의미로 ‘정가라 일컫기도 한다.

세 장르의 특징을 소략해보자. 먼저 가곡과 시조를 비교해보는 편이 빠를 것이다. 이들은 같은 시조(시)를 노랫말로 한다. 가곡은 선비들이 풍류방에 모여서 가야금·거문고·대금·장구·세피리 등 소규모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던 것이고, 시조(창)는 민간에서 즐기 만큼 비싼 악사를 대동하지 않고 가볍게 무릎 반주나 장단 정도만 갖춰 불렀다. 비교적 편하게 부르고 즐길 수 있어서였는지, 가사는 널리 퍼져 지역의 특징을 담아낸 ‘제’를 형성했다. 민요가 경기민요·서도민요·남도민요로 나뉘듯, 시조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불리는 경제와 향제, 전라도 인근에서 불리는 완제, 경상도의 영제, 충청도의 내포제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가사는 이들의 중간쯤이라고 할까. 5장이라는 시 형식에 맞춰 부르는 가곡이나 시조와 달리 자유로운 형식의 노랫말을 부를 수 있었다. 지금은 총 12곡의 가사가 남아 있어, ‘십이가사’라

부른다. 오늘은 이 중 시조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비우고 덜어내며 즐기는 시조를 읊기에 좋은 계절이기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부르짖으며 쫓기듯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노래가 새로운 힐링 포인트로 자리하고 있다. 레치타티보 recitativo 처럼 빠르게 끊어지는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엔도르핀을 생성하기도 하지만, 겹표 없는 달리기엔 지치지 마련인 법. 그래서 계절의 풍요를 간직한 자연 안에서 풍류를 즐기던 선조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한마디로 ‘흘러가 사라지고 마는 그 시간을 즐기는 셈’이다. 그래서 시조를 ‘시절가’ 혹은 ‘시절단가’라 부르는데도 모르겠다.

7월이면 띄약별 아래 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자연의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바로 매미의 울음이다. 선조들은 이런 소리 하나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 매미 울음의 어감을 살려, 세상의 시비를 떠난 은둔 거사의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바로, 시조 ‘매아미’다.

매아미 맵다하고  
쓰르라미 쓰다하네  
산채 山菜를 맵다더냐  
박주 薄酒를 쓰다더냐  
우리는 초야 草野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  
『청구영언』 육당본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이미 알아차렸으리라. 시조의 이름은 가사의 첫 단어로 붙인다. “청산리

벽계수야”로 시작하기에 ‘청산리’, “매아미 맵다하고”로 시작하기에 ‘매아미’인 것. 한자가 많고, 역사적 배경이 가사에 녹아 있어 어렵게 느끼는 이도 있지만, 이렇듯 쉬운 부분도 있다.

쉬운 부분의 하나로, 노래 제목에 창법을 드러내기도 한다. 가령 평시조는 평평하게 내는 소리를 의미하고, 지름시조는 질러서 내는 소리, 중허리시조는 첫 박부터가 아닌 중간에 해당하는 3~4번째 장단에서 내질러 소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쓰르르’ 하는 소리를 ‘쓰다’로 연결하는 재치나, 산채와 박수를 세상에 비유하는 것이나, 노래 제목에서 투명하게 드러내는 창법의 묘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더해진다. 이러한 재미 요소를 곱셈으며 느린 곡조에 마음을 얹으면, 이만큼 즐겁게 고즈넉한 감상을 일으키는 노래가 있을까 싶은 정도다.

현대인의 겹표로 우리 노래가 알려지기 전부터 시조의 깊은 풍취에 푹 빠진 이들도 있다. 바로 경제시조보존회다. 이들이 7월 5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정기 발표회를 연다. 창덕궁의 얼굴인 돈화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자연음향 공연장이다. 오래도록 정가에 빠져 사는 어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정가 합창단과 고등학생 시조회까지 가창자로 무대에 오른다.

최근 지구 기온 상승 폭이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을 거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만큼 울여름은 뜨거울 예정이고, 이번엔 또 몇 년만의 폭염 수치를 갱신하게 될지 두려울 정도다. 이렇게

더울 땀 무엇이든 훌훌 털어내고 알케 흐르는 바람 한 점에 집중해야 하는 법이다. 자연음향으로 전해지는 시조 한수를 들으며 여유롭게 더위를 식히는 게, 울여름 가장 ‘핫’한 트렌드가 될지도 모르겠다.



# 자수와 장신구에 새긴 이야기

김수진 노블레스 라이프스타일팀장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아름답고 쓸모 있게 만드는 일, '공예' 사용하기 편리하고 실용적인 동시에 고운 형태와 섬세한 문양을 품은 아이템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매일 쓰는 그릇에서 우아함을 마주하고, 자주 시선이 닿는 곳에 둔 오브제를 통해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공예의 힘일 터. 이런 공예의 매력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두 편의 대규모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자수'다. 천 위에 바늘로 실을 한 땀 한 땀 새겨 그림이나 글자, 무늬를 수놓는 공예의 한 종류다. 가느다랗고 긴 실이 장인의 손을 만나면 세상의 만물로 거듭난다. 예로부터 자수는 미를 위한 장식 역할을 주로 해왔다. 생활복식, 병풍 등 일상속 물건을 꾸민 것은 물론 한 점의 회화와 같은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는 이러한 지점에 주목해 한국 근현대 자수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한국 근현대 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을 준비했다.

19세기 말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급변한 시대 상황과 미술계의 흐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해온 한국 자수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인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국내의 자수 작품을 총망라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필드자연사박물관·일본민예관을 포함한 국내의 기관 60여 곳과 개인이 소장한 근현대 자수, 회화, 자수본 170여 점, 아카이브 50여 점을 한자리에 모은 것.

전시는 총 4부로 나뉘는데, 시대 흐름에 따른 자수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구성이다. 1부 '백번 단련한 바늘로 수놓고'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작된 다양한 전통 자수를 조명한다. 민간 여성들이 제작한 자수 십장생도 병풍과 궁녀들이 수놓은 보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제된 문양의 도안 위에 천연염료로 물들인 다채로운 색실을 사용한 궁수는 고아한 기품이

배어나고, 일상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민수는 자유분방한 구도와 강렬한 원색 대비가 도드라져 비교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당시 큰 인기를 끈 평안도 안주의 남성 자수장인 집단이 제작한 '안주수' 작품들도 흥미로운데, 특히 안제민의 <자수 지장보살도>는 일반에 처음 공개돼 더욱 특별하다.

2부 '그림 갖흔 자수'에서는 20세기 초 미술 공예로 거듭난 자수의 변화를 고찰한다. 그간 거의 공개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 도쿄에 위치한 여자미술전문학교 (현 여자미술대학)에서 유학해 자수를 전공한 박을복·나시군 등 한국 학생들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마치 회화처럼 표현이 매끄럽고 유려한 윤봉숙의 1938년 작 <오동나무와 봉황>도 만날 수 있다. 한편 3부 '우주를 수건으로 삼고'에서는 광복 후 시기에 초점을 맞춰 현대 공예로서의 자수를 다룬다. 광복 직후 이화여자대학교에 자수가가 설치되며 생겨난 수많은 변화와 함께, 당시 대세를 이룬 추상미술을 수용한 송정인의 <작품 A>, 김인숙의 <계절 II> 같은 자수 작품을 선보인다.

마지막 4부 '전통미의 현대화'는 계승해야 할 전통 공예로 부각된 지금 시대의 자수에 대해 살피는 섹션으로, 한상수의 <중중자수 모란도 병풍>, 최유현의 <팔상도> 등 국가무형유산 자수장의 걸작을 준비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한국 자수의 흐름과 다채로운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는 8월 4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장신구를 소개하는 전시가 한창이다. 《장식 너머

발언》은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현대 공예 작가 총 111팀의 장신구 675점을 선보이는 자리. 단순히 장식을 위한 물건을 넘어 현대사회의 혼돈과 부재 속에 작지만 강력한 발언의 매개체가 되는 현대 장신구를 조명한다. 신라 시대의 금관이나 조선 시대의 노리개·비녀처럼 과거, 부와 권력의 상징이거나 아름다움을 더하는 도구로 사용된 장신구는 현대로 접어들며 예술·철학·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장신구의 변천사와 의미를 되짚는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주얼리 아방가르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두 나라의 현대 장신구에 대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를 넘어 유럽 현대 장신구의 변화를 이끈 엘리자베스 데프너(Elisabeth J. Gu. Defner·아니타 뮌츠Anita Münz)를 비롯해 이정규·김정후 등 금속공예를 기반으로 예술장신구의 개념을 전파한 작가들의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가 펼쳐진다. 이어 2부 '현대장신구의 오늘'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제작된 장신구를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공통 제작 주제인 '신체', '자연', '서사'라는 키워드 아래 전시한다. 마지막으로 3부 '현대장신구의 내일'에서는 과거를 계승하며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미래를 대비하는 작가들의 제작 방식과 태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신체와의 관계를 탐구하거나 심상 속에 투영된 자연을 담는다면, 사회적 이슈와 시공간에 얽힌 담론을 포출하는 다채롭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시선을 붙든다. 7월 28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를 통해 현대 공예 속 장신구의 의미와 미학을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 CONTRIBUTORS

2022년 7월 '대학교극장 퀴드' 개관 기자간담회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정동 산자락에 위치해 있던 남산예술센터를 떠나보내고, 대학로 한복판에 재단 소유 공연장을 개관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퀴드에서 일어난 예술적 실험은 3년 차를 맞이하는 지금 새로운 극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양분이 되겠지요? 2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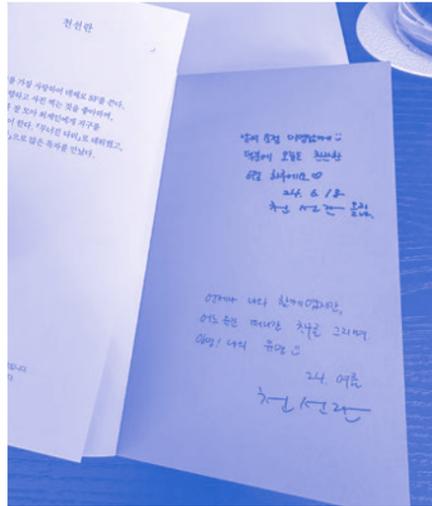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 EPILOGUE

이번 호 '예술가의 진심' 인터뷰 덕분에 저는 성덕이 됐습니다! <최애 소설가 천선란 작가님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였는데요. 일찍 도착해서 인터뷰 시작 전 짧은 단독 팬미팅(?)도 가졌습니다. 침묵의 순간이 어색하지 않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사랑! 잠깐씩 이어지는 침묵마저도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 같았어요. 다음에 또 만날 어느 날도 날씨가 좋기를, 작가님의 매일이 늘 찬란하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BEHIND THE SCENE

6월 내내 대학로센터를 들락거렸습니다. 머물렀을 뿐인데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더운 여름, 문 밖에서 흐르는 건반 소리가 명랑한 문화 사랑방에서 한 톱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김태희 디자이너끼 에디터



### EPILOGUE

여름이 오면 1994년과 2018년의 더위가 회자되곤 한다. 1994년의 불볕더위는 기억 속에 또렷하게, 2018년 39도를 찍은 날은 날씨 화면 캡처로 남아 있다. 6월부터 35도까지 올라갔으니,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는 피할 수 없겠지. 반바지와 시원한 소재의 옷을 장바구니에 담으며 다가올 무서운 여름을 준비한다.

전민정 편집위원

###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서울시민 예술학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 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

문의 02-2697-0013, 0016

